

# 고대 TODAY

WINTER 2014, VOL. 59



LIBERTAS  
JUSTITIA  
VERITAS

### 안암캠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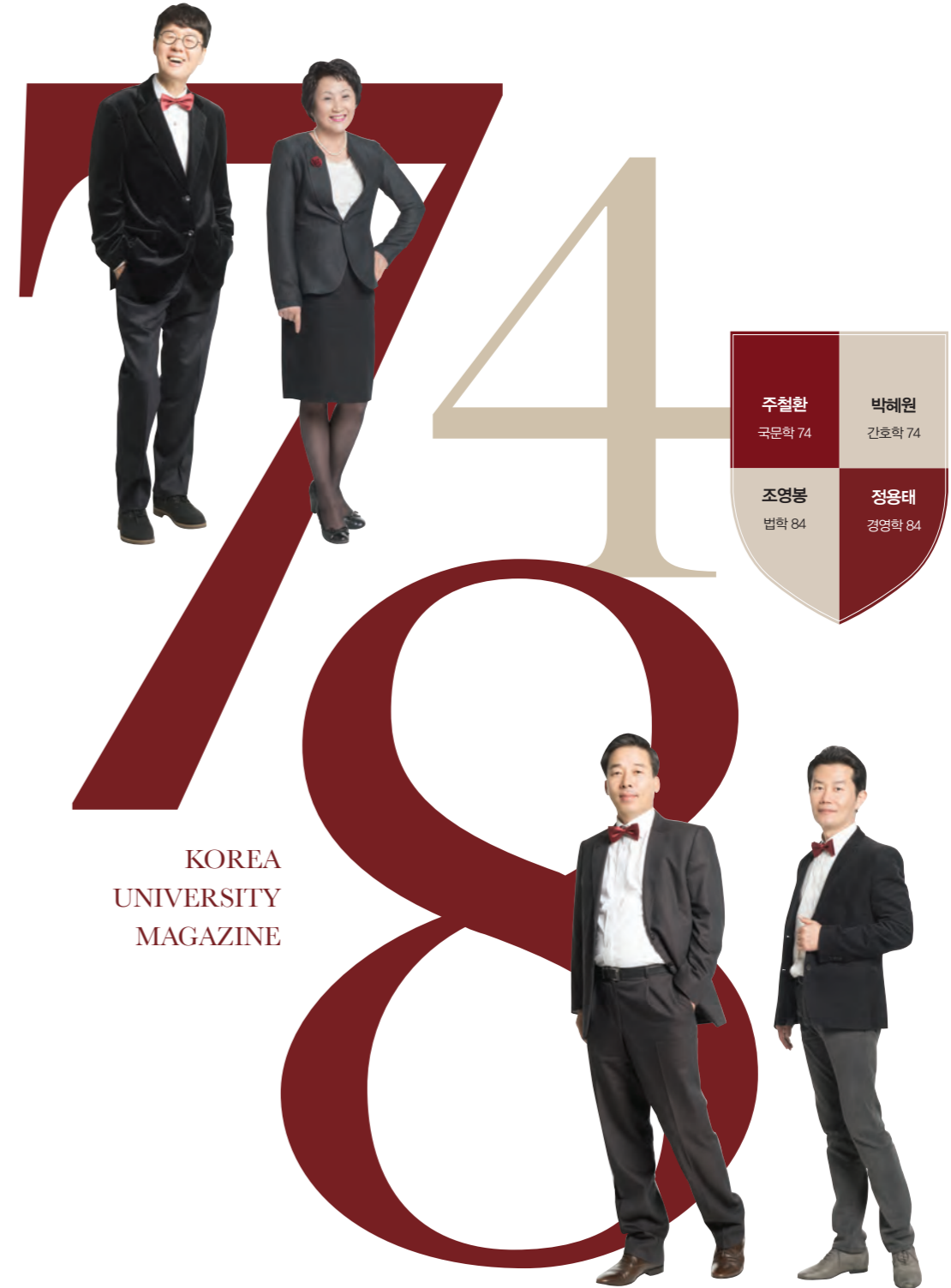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Tel 02-3290-1114  
www.korea.ac.kr  
www.korea.edu

### 세종캠퍼스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로 2511  
Tel 044-860-1114  
sejong.korea.ac.kr

### 발행처

고려대학교 대외협력처 커뮤니케이션팀  
Tel 02-3290-1062  
e-mail kutoday@korea.ac.kr



## Letter Tele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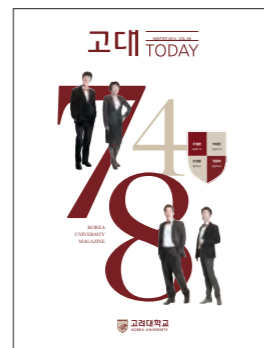
고려대학교 재학생들이 스토리텔링을 시작합니다.

‘고대인에게 생명이란 무엇일까?’

‘선배들을 향한 전보’

‘당신에게 고려대학교는 무엇인가요?’

교우들이 생각하는 ‘생명’의 고려대학교,  
선배들을 향한 소중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 COVER STORY

지난 10월 입학 40주년을 맞은 74학번, 입학 30주년을 맞은 84학번의 홈커밍데이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두 행사 모두 개성 넘치는 프로그램과 내실 있는 운영으로 교우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어냈다.

행사의 기획과 운영을 맡았던 주역들을 만나 뜻깊은 이야기를 들어본다.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 미래노벨상 기금 기부자예우

노벨상 수상자와 함께 하는 강연과 특별만찬에 초청합니다.  
예비 노벨상 인재와 노벨상 수상을 위한 여정에 동행할 수 있습니다.  
노벨 플라자(Nobel Plaza)에 고귀한 뜻과 이름을 영구 보전합니다.



<p>요즘 대학들은 취업양성소 같은 느낌. 하지만 고려대는 진정 학문을 추구하는 학교다운 학교. <b>수학과 14학번 심새롬</b></p>	<p>우리 고려대학교의 단합은 최고죠! <b>식품자원경제학과 13학번 정예진</b></p>	<p>고려대학교는 나의 20대 삶의 활기를 주는 비타민이자 원동력 <b>노어노문학과 13학번 정민지</b></p>	<p>생명은 세상 무엇보다 값진 것. <b>신소재공학부 14학번 강효진</b></p>	<p>생명이란 삶의 이치. <b>산업정보디자인과 11학번 조윤정</b></p>
<p>생명은 사랑이다. 사랑은 만물을 잉태하기 때문이다. <b>지구환경과학과 14학번 박서연</b></p>	<p>선배에게 얻어먹은 만큼 후배들에게 베풀겠습니다! <b>바이오회공학과 14학번 최상익</b></p>	<p>생명이란 활기를 가지는 것. <b>건축학과 14학번 이서현</b></p>	<p>존경하는 선배님들, 학교에 자주 오셔서 경험도 들려주고 저희가 가진 진로에 대한 고민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b>생명환경과학대학원 환경생태공학과 14학번 이은정</b></p>	<p>고려대학교는 동아줄이다. <b>건축사회환경공학과 13학번 김기태</b></p>
<p>선배님들께 사회에 대한 이야기와 여러 가지 삶의 노하우를 듣고 싶습니다. <b>전기전자전파공학과 13학번 조정훈</b></p>	<p>고대는 내 생활의 터전이다. <b>수학과 14학번 황승환</b></p>	<p>선배님들! 학과 행사에도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b>식품자원경제학과 14학번 이윤재</b></p>	<p>고대는 내 마음의 고향. <b>자유전공학부 10학번 김세정</b></p>	<p>고려대학교는 꿈을 이뤄주는 터전이다! <b>식품자원경제학과 14학번 변영우</b></p>
<p>생명은 나보다 다른 누군가에게 소중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b>정치외교학과 13학번 김리현</b></p>	<p>고대란 내가 얻은 권리이며 또한 지켜야 할 의무다. <b>수학교육과 12학번 이승주</b></p>	<p>생명이란 그 존재만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높고 낮음이 없이 각자의 위치에서 조화롭게 세상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b>경제학과 10학번 나윤호</b></p>	<p>고대는 나의 앞길을 열어주는 영원한 꼬리표. <b>신소재공학부 14학번 옥승림</b></p>	<p>생명은 소중한 것이다. <b>생명환경과학대학원 기후환경학과 13학번 전미정</b></p>
<p>나에게 고대란 내 인생 최고의 선택. <b>체육교육과 12학번 이재준</b></p>	<p>저에게 고대란 다양한 경험을 시켜준 곳이자 생각의 깊이를 만들어준 곳입니다. <b>경제학과 09학번 이종성</b></p>	<p>고대란 제 인생에서 영원히 함께 해주는 명예임과 동시에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한번 더 생각하게 해주는 존재입니다. <b>신소재공학과 12학번 조윤경</b></p>	<p>고대는 저를 가장 빛나게 하는 곳입니다. <b>통계학과 11학번 유지연</b></p>	<p>생명이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 <b>생명공학부 12학번 한철진</b></p>

## CONTENTS

### Sapiens People 03

- 04 74, 84! 잠 깨어 오라! 반갑다 친구야 '홈커밍데이'
- 08 개교 109주년 안암캠퍼스 80주년 기념 콘서트 '요람에서 광야로'
- 12 아이스하키부 김희우 감독, 승리의 DNA를 심다

### Sapiens Inteligencia 15

- 16 설립 20주년 동해연구회, 박노형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 디지털 경제 시대의 필수 언어 컴퓨터 코딩 교육, 김현철 컴퓨터학과 교수
- 22 감상선암 조기검진의 위험성 연구, 안형식 예방의학교실 교수
- 24 신간 도서

### Sapiens Architecture 25

- 26 지성의 터전, 안암캠퍼스 안암학사, 세종캠퍼스 호연학사
- 30 고려대학교 그 역사 속으로
- 32 낱말 풀이

### Sapiens Culture 33

- 34 고려대학교의 새로운 전통, 크림슨 마스터즈 콘서트
- 38 새로운 시대를 위한 법조인 양성, 법학전문대학원
- 40 하얀 이불을 덮은 순백의 겨울 캠퍼스
- 42 당신에게 생명이란?

### Sapiens Trigger 43

- 44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으로 도약하는 KU,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 KU News 47

- 48 언론이 본 고려대 김병철 총장의 4년
- 50 고대 뉴스

### KU Donor's 59

- 60 세계를 선도하는 후학 양성을 위해, 고대의대 미주교우회 설흥수 회장
- 62 평범한 기부를 실천합니다, 멕시코 교우회 소민수 회장
- 64 고려대학교 발전기금 기부(약정)자 명단



# 사라

Sapiens People

넘치는 물질문명과 가치 혼돈의 시대, 무엇보다 필요한 초인(超人)은 지성인이며 그 힘은 집단 지성의 형식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시대를 이끄는 이러한 지성인의 요람으로 지난 110년간 한반도 문명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KU의 신지성인, KU Sapiens를 만나보았습니다.

# 74, 84! 잠 깨어 오라! 반갑다 동기야 홈커밍데이

지난 10월, 입학 40주년을 맞은 74학번, 30주년을 맞은 84학번 동기들의 홈커밍데이 행사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두 행사 모두 개성 넘치는 프로그램과 내실 있는 운영으로 여느 때보다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현장의 중심에 있었던 이들을 만나 행사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열린 '총장 초청 입학 40주년 홈커밍데이'의 피날레 중

## 7440 함께 한 40년, 함께 할 40년

10월 14일, 74학번들의 입학 40주년 홈커밍데이 행사 '함께 한 40년, 함께 할 40년'이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개최됐다. 행사는 김현욱(서어서문 92) 아나운서의 진행과 전 주에 있었던 고연전 최초 5전 전승 위업 달성 소식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시작됐다. 김병철 총장과 74동기회 설훈 회장의 축사가 있었고, 뒤이어 은사와의 만남과 학교 발전기금 및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다. 74학번을 의미하는 7400만 원의 발전기금과 재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 전달됐다. 본 행사의 시작은 74학번 교수들과 재학생, 외국인 학생들의 <고래사



**주철환**  
국문학 74  
아주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박혜원**  
간호학 74  
74여자교우회장

냥)과 <젊은 고대(<젊은 그대>를 개사)합창이 장식했다. 본 행사 진행은 주철환(국문학 74, 전 MBC PD)과 배우 문지현(교육학 74) 교우가 맡았다. 1970년대 정기전의 주역인 74학번 운동선수들을 초청해 감사패 전달과 시상하는 '우리들의 시상식' 코너도 있었다. 시상식 도중 응원가를 함께 부르자는 주철환 교수의 깜짝 제안에 참석자 모두 "나가자 폭풍 같이 고대 건아"를 부르는 장관이 연출되기도 했다. 한편, 음악 실력을 겨루는 자리도 있었다. 바로 '고려대학교 슈퍼스타K 74'다. 총 7팀이 악기 연주나 가창을 뽐냈고, 대상의

영예는 김윤배(임학 74) 교우에게 돌아갔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가수 송창식의 공연이었다. 그는 74학번들이 가장 사랑한 노래 1위로 꼽힌 <고래사냥>을 비롯해 <상아의 노래>등의 히트곡을 불렀다. 행사는 학교에서 준비한 만찬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 어려운 숙제를 기분 좋게 마치다

**주철환** 큰 숙제를 마친 기분입니다. 친구들이 저에게 이번 행사를 기획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행사가 즐겁지 않으면 큰일이니까요.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박혜원** 이번 행사를 통해 앞으로의 10년은 확실히 확보한 것 같아 기쁩니다. 모금 계획에 입각한 모금액을 달성했거든요. 이제 은퇴한 세대인 만큼, 대대적인 모금 활동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준비했습니다. 덕분에 앞으로 10년을 교우회비 모집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기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뤄낸 성과입니다.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행사를 준비하면서

**주철환** 음악과 관련된 에피소드들이 기억에 남네요. 동기들을 대상으로, 대학 시절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노래가 무엇인지 앙케이트를 벌였습니다. 1등이 송창식 씨의 <고래사냥>이었죠. 그래서 송창식 씨를 섭외해야 했는데, 과연 모실 수 있을지 걱정이 됐습니다. 섭외 연락은 시도했으나 제대로 전해졌는지 알 수 없던 차, 저와 친분이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타리스트 함춘호 씨에게 한 통의 연락을 받았습다. 송창식 씨가 고려대학교 74학번 모교방문행사에 간다고 하는데, 본인도 함께 가겠다고 하더군요. 섭외가 무사히 되었구나 싶어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행사 오프닝 공연으로 재학생과 74학번들이 함께 부르는 합창을 준비했습니다. 젊은이들과 나이 든 사람의 호흡이 달라 매끄러운 하모니를 이루기가 쉽지 않더군요. 후배들과 함께해서 기쁜 마음과 내가 많이 늙었구나 하는 서글픈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박혜원** 작년 7월부터 본격적인 행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신도호 사무총장이 처음 기획부터 행사 전까지 많은 노력을 했는데 행사 이틀 전 장모상을 당하는 바람에 정작 본인이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신 사무총장은 아마 장모가 자신을 너무 사랑해, 고된 일정을 털어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하네요. 많이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신 사무총장의 부재는 설훈 74동기회장이 메꿔주었습니다. 바쁜 국회의원 활동에도 짬짬이 시간을 내가며 많은 노력을 해줬습니다.

### 함께한 40년의 끈끈한 동기에

**주철환** 우리 학교는 끈끈한 학우애로 유명하죠. 저희는 졸업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교류가 끊긴 적이 없네요. 요즘에는 '네이버 밴드' 어플을 통해 더욱 활발히 연락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박혜원** 74학번 동기회에는 각 학과별 모임, 산우회, 기우회, 골프

회, 여교우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끄는 여교우회는 분기별로, 1년에 총 4번의 공식 만남과 번개 모임을 가지고 있네요. 고대다운 끈끈함으로 뭉친 모임들입니다.

### 낭만의 고대 시절

**주철환** 그 시절에는 술을 참 많이 마셨습니다. 학교 앞에 학과별 단골 술집도 있었습니다. 고모집과 이모집이라는 술집은 아직도 기억납니다. 거의 매일 가다시피 했으니까요. 통행금지 가 있던 시절이라, 술을 마시면 친구 자취방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곤 했죠. 동기들과 형제처럼 지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편, 노래를 좋아했던 저는 신곡을 친구들에게 소개해주곤 했습니다. 아직도 친구들이 제가 그때 알려줬던 노래가 생각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빨리 태어나길 잘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청년백수 백만 시대'라고 하죠. 우리 때에 취직은 당연히 되는 것이었습니다. 국문학과 74학번 중 PD가 다섯일 정도입니다. 그런 호시절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경쟁하지 않으면 낙오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친구가 라이벌이니 노트도 잘 안 빌려줍니다. 우리 자식 세대는 너무나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박혜원** 간호학과 대표였던 박명혜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명혜는 간호학과 4학년 수학여행의 마지막 날 일정으로 부산대학교와의 미팅을 계획했었다고 합니다. 어떤 바닷가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남학생들이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은 거예요. 당시에는 연락 수단도 없어 어찌된 일인지 영문을 알 수 없었고, 결국 허허벌판 같은 그 바닷가를 3시간 동안 거닐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 때문인줄도 모르고 원래 바닷가를 거니는 일정이 있었다고 생각했지 뭐예요.

### 동기야 함께 즐겁자

**주철환** 지금처럼 동기들과 끈끈한 우애를 나누며 남은 인생을 함께 더 즐기며 보내고 싶습니다. <중앙일보>에 기고하고 있는 월요칼럼 '분수대에' '2014 강릉 데카메론'이라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동기 10명과 함께한 강릉 여행의 명칭입니다. 여행은 안타까



01 가수 송창식의 공연 02 슈퍼스타K 74 03 74학번들과 재학생들의 합창

# 84

운 사연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5월 중순 동기 용찬이가 설악산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 사망했습니다. 5월 하순, 아들의 결혼식을 앞두고 일어난 일입니다. 피로연에서 동기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함께 여행을 가면 어떠냐고요. 앞으로 친구들과의 여행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살아 있을 때 함께, 더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박혜원**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이번 행사 모금액으로 개별 소모임에 금전적인 지원도 할 것입니다. 소모임이 활성화 되어야 큰 모임도 잘 이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동기들이 더 이상 금전적인 부담 없이 편안하게 나와줬으면 합니다.

### 젊은 고대인들에게

**주철환** 지난 행사에서 후배들과 함께 불렀던 노래가 <젊은 고대>입니다. 고대에서는 '젊은 고대'를 '젊은 고대'로 바꿔 부르답니다. 그 노래의 가사처럼 '젊은 고대, 잠 깨어 오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친구들을 많이 사귀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건강, 돈보다 친구입니다. 친구가 빠지면 인생이 너무 쓸쓸해요.



**조영봉**  
법학과 84  
변호사, KU8430  
집행위원장



**정용태**  
경영학과 84  
스톤앤메이플 대표,  
KU8430 기획위원장

## 8430

### 선물 같은 오늘

84학번들의 입학 30주년 홈커밍데이 행사는 지난 10월 25일 치뤄졌다. 고려대학교 홈커밍데이 행사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원인 1300여 명이 참석하여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이인영 공동준비위원장은 지난 1년간의 축제 준비 시간을 "젊음을 회복하는 꿈결 같은 경험의 시간"이었다고 말하며 감회에 젖었다. 그도 그럴 것이, 84학번들은 25일 본 행사 전까지 자체적으로 1년여간 월별 행사를 가지는 열정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모교에 장학 및 발전기금으로 4억 원을 기탁했고 교우회 장학기금으로는 1억 원을 기탁했다. 이는 연초 모금 목표액을 113% 달성한 수준이고, 특히 모금에 참여한 동기들이 1779명에 이르는 사상 최대의 참여자를 기록한 것이다. 2부 행사의 서막은 노래패 '노래열'이 열었다. 노래열의 공연에 이어 민중가수 박우전(일문) 교우가 <민주주의여 만세>를 열창해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KU8430 합창단의 <선물 같은 오늘> 합창이었다. <선물 같은 오늘>은 84동기들을 대상으로 공모한 가사에 그를 자전적 탄 풍경의 리더 강인봉(신방) 교우가 곡을 입힌 노래다. 푸른 청바지에 하얀 셔츠를 입은 100여 명의 84학번들이 <선물 같은 오늘>을 합창하며 이날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겼다.

### 우정, 나눔, 함께

**정용태** 2014년을 5000여 명의 고대 84동기들이 하나가 되는 1년을 만들고자 매월 색다른 행사를 운영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10년이 넘는 행사는 '우정, 나눔, 함께'라는 일관된 콘셉트로 진행하였습니다.

**조영봉** 월별 행사를 통해, 그동안 낯설고 쑥스럽다는 이유로 모임에 나오지 않았던 친구들을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재미없었다면 친구들이 점차 나오지 않았을 것인데, 기획위원장 정용태의 탁월한 기획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 서울대 출신도 후회하게 만든 KU84

**정용태** 뮤지컬 기획자 윤현진 동기가 저희만을 위한 연극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연극 내용에 우리들의 이야기를 녹였고, 친구들이 직접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대학로 공연장을 통으로 빌렸고, 200명의 동기들이 레드 컬러로 옷을 맞춰 입고 연극을 관람했습니다. 중간에 강인봉 동기가 공연도 해줬죠. 이날 한 동기가 서울대 출신의 동생과 함께 참석했는데, 그 동생이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서울대 출신인 것을 최초로 후회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01 동티모르에서 벽화 봉사를 마치고  
02 84동기들의 1년간의 활동이 고스란히 담긴 책자  
03 84동기들이 함께 만든 노래 <선물 같은 오늘>

### 감동의 연속

**조영봉** 월별 행사는 작년 5월 17일 북한산 둘레길 걷기로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가진 프레젠테이션 시간에 150명 중 단 한 명도 집중이 흐트러지지 않더군요. 둘레길을 걷고 온 후라 피곤했을 텐데 말이죠. 저는 이때부터 본 행사의 성공을 예상했습니다. 느낌을 확신으로 바꾸어줬던 건, 동티모르 봉사였습니다. 동티모르로 떠난 인원은 10명이었지만, 아이들을 위한 물품들로 채운 '희망 나눔 배낭' 200여 개를 비롯한 봉사 물품의 준비와 모금에 모든 84동기들이 함께 했습니다.

**정용태**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보여주지 못한 봉사를 많이 봐 왔던 모양입니다. 벽화 봉사를 하려는데, 빨리 가라는 얘기를 하더군요. 저희는 묵묵히 봉사에 매진했습니다. 벽화만 해도 기존에 계획했던 한글학교의 벽면뿐만 아니라 동티모르 고용노동부 벽면까지 추가로 그려줬죠. 저희 활동을 형식적인 봉사로 오해했던 현지인들의 마음은 어느새 녹아 있었습니다.

### 우리 이야기를 하자

**정용태** 저희 홈커밍데이 책자에는 지금 우리들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책자에는 동기들과 함께 했던 한 해의 추억을 담았습니다. 노래 <선물 같은 오늘>을 만든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 이야기를 담아 우리가 만든 노래거든요. 나란히 걸어가 수 있는 친구들 덕분에 하루하루가 선물 같은 오늘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본 행사 테마 아이디어도 이 곡에서 얻었죠.

**조영봉** <선물 같은 오늘> 합창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합창 연습은 지난 9월 2일부터 시작했습니다. 100명의 합창자들은 물론이고 지휘자와 반주자, 하물며 장소 제공자까지 우리 동기입니다. 울산에서 합창 연습만을 위해 매번 서울에 올라왔던 친구도 있었습니다. 하나의 마음으로 열정을 보여준 친구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 슈퍼스타들의 탄생

**정용태** 월별 행사를 하면서 뛰어난 친구들이 계속 발굴되었습니다. 사진을 잘 찍는 친구, 사진빨이 잘 받는 친구, 모임을 잘 리드하는 친구, 응원단장의 소질이 있는 친구 등 다양한 분야와 상황 속에서 저희들만의 스타들이 탄생되었습니다.

**조영봉** 끼와 재능이 넘치는 동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놓치지 않고 아름다운 광경으로 포착해 남겨준 이성희, 이민형 농구 감독, 박시백 화백, 자전적 탄 풍경의 강인봉, 뮤지컬 기획자 윤현진 등이 모두 재능 기부를 해주었습니다.

### 처음과 끝이 같았던 1년

**조영봉** 보통 행사가 끝날 즈음이면, 하나둘씩 자리를 뜨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우리 행사에서는 1300명의 친구들 중 누구 하나 먼저 일어난 친구가 없었습니다. 1회 월별 행사부터 대미를 장식한 본 행사까지, 처음과 끝이 같았던 1년이 아닐까 합니다.

# 고려대학교의 건축·문학·역사의 발자취를 따라서 개교 109주년 안암캠퍼스 80주년 기념 콘서트 ‘요람에서 광야로’

10월 29일(화), 30일(수) 이틀간 고려대학교 개교 109주년, 안암캠퍼스 80주년을 기념하는 콘서트가 열렸다. 29일(화) 백주년기념삼성관 원격회의실에서 열린 건축 콘서트 ‘건물에서 캠퍼스로’와 문학 콘서트 ‘문학에 비친 고려대학교’에 이어 다음 날 30일(수)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1층 강당에서는 ‘요람에서 광야로 - 고려대학교 사람들이 만든 명곡을 찾아서’ 음악 콘서트가 진행됐다.

지난 10월 29일(화) 개교 109주년, 안암캠퍼스 80주년 행사의 시작을 알린 건축 콘서트 ‘건물에서 캠퍼스로’는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김세용 교수의 해설로 진행됐다. 김세용 교수는 약 20분간 고려대학교 캠퍼스와 건물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뒤를 이어 문학 콘서트 ‘문학에 비친 고려대학교’가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고형진 교수의 해설로 진행됐다. 고형진 교수는 오탁번 시인의 시 <고려대학교>를 낭독하며 고려대 교가와 응원가에 대해 편안 한 분위기로 관객과 소통하며 평론했다. 이어 영화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강유정(국어교육 94) 씨와 함께 고려대를 배경으로 한 문학작품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문학 콘서트에는 원광대 강연호 교수, 전주대 이희중 교수, 고려대 김재혁

교수가 나와 고려대학교를 배경으로 한 자신들의 작품을 낭독하고 작품에 대해 대담을 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30일(수)에는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음악 콘서트 ‘요람에서 광야로 - 고려대학교 사람들이 만든 명곡을 찾아서’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약 1,200여 명의 관객이 참석했다. 음악 콘서트는 기획과 해설을 맡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민경찬 교수와 고려대 교양교육실 류경선 교수가 진행을 맡았다.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교수이자 세계적인 성악가 바리톤 최현수의 김소월 작사·작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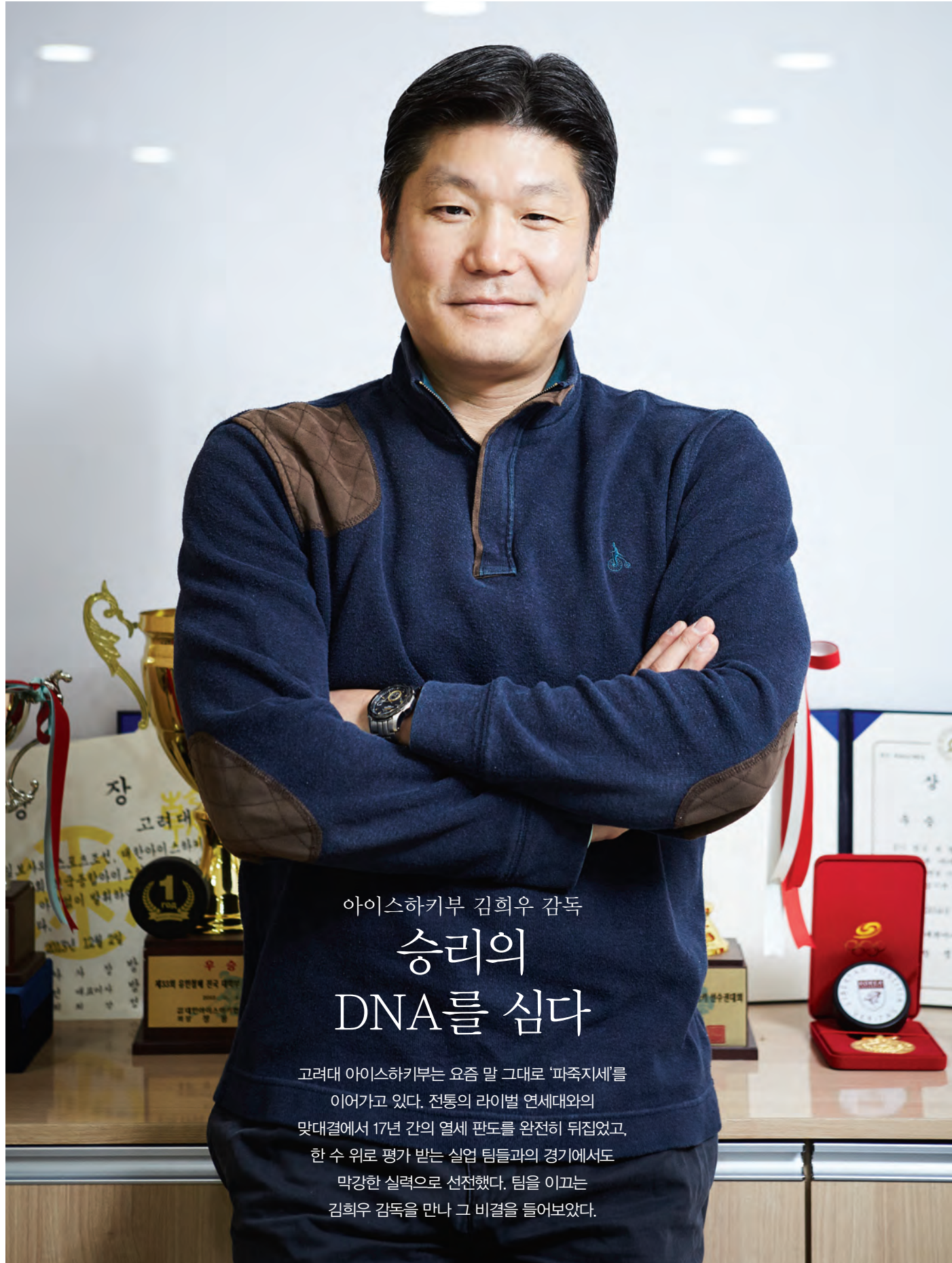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의 무대를 시작으로, <형제별>, <꽃밭에서>, <과꽃>, <파란마음 하얀마음> 등 한국예술종합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합창단의 무대가 이어졌다. 이날 공연에는 고려대를 위해 창작된 곡들도 소개됐다. 고려대 개교 100주년을 기념으로 작곡된 <글로벌 고려대>와 일본에서 취업을 구하다 지하철역에서 희생된 고 이수현씨를 추모하기 위한 <친구를 위하여>를 공연했다. 콘서트 말미에는 공연에 참석한 모든 관객들과 합창단이 하나 되어 동요와 교가를 부르며 행사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01 행사 안내를 하는 학생홍보대사 여울.  
 02 고려대학교를 배경으로 한 문학 작품에 대해  
 대담을 나누는 고희진 교수와 강유정 영화평론가.  
 03 <고려대학교> 시를 낭송하는 고려대학교 여교우  
 04 첫 행사인 건축 콘서트의 진행을 맡은 고려대  
 건축학과 김세용 교수. 05 자신의 작품인 <제기동  
 블루스> 시를 낭송하는 원광대 문예창작과 강연호  
 교수. 06 건축, 문화 콘서트는 백주년기념상설관  
 원격회의실에서 열렸다. 07 음악콘서트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인 성악가 바리톤 최현수 외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들과 합창단이 무대를 꾸몄다.  
 08 음악 콘서트 진행을 맡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민경찬  
 교수와 고려대 교양교육실 류경선 교수.  
 09 세계적인 성악가 바리톤 한국예술종합학교  
 최현수 교수. 10 <청산리 벽계수야>를 노래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졸업생인 이지나 소프라노.  
 11 음악콘서트 말미에는 청중 모두가 일어나  
 고려대학교 교가를 합창했다.





아이스하키부 김희우 감독  
**승리의 DNA를 심다**

고려대 아이스하키부는 요즘 말 그대로 '파죽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통의 라이벌 연세대와의 맞대결에서 17년 간의 열세 판도를 완전히 뒤집었고, 한 수 위로 평가 받는 실업 팀들과의 경기에서도 막강한 실력으로 선전했다. 팀을 이끄는 김희우 감독을 만나 그 비결을 들어보았다.

**아이스하키부의 성공적인 2014년**

지난 11월 24일 경기를 마지막으로 2014년 아이스하키종합선수권대회 조별리그가 끝이 났다. 고려대학교 아이스하키부가 거둔 성적은 1승 2패. 같은 조에 속한 두 실업 팀에게는 패했지만, 숙적 연세대에 3대 2로 역전승하며 조 3위로 선전했다. 팀을 이끄는 김희우 감독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시즌 막바지까지 뻘뻘한 스케줄에 맞춰 선수단을 지도하느라 지쳤을 텐데도, 약속을 정하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에는 우직한 기운이 실려 있었다.

“기본적인 기량도 한 수 위인데다, 용병까지 가세한 실업 팀을 상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마지막 경기에서는 유종의 미를 거두어보자 하고 나섰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겸손한 자세로 대회를 돌아봤지만, 고대 아이스하키부의 2014년은 분명 성공적이었다. 지난 10월 정기 고연전에서의 승리가 신호탄이 됐다. 이후 '코리아리그'와 '유한철배 전국대학부아이스하키대회'에서 연이어 우승 트로피를 들었다. 특히 전통의 맞수 연세대에게는 이번 시즌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다. 6전 4승 2무. 지난 17년 간의 열세를 완전히 뒤집어버렸다.

**승리의 비결, 先 체력 後 기술**

김희우 감독이 2013년 3월 고려대로 부임하던 당시는 아이스하키팀 내부적으로 진통을 겪던 시기였다. 어려운 팀을 맡아 2년여의 짧은 시간 안에 훌륭한 팀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가장 먼저 그는 선수들에게 일상과도 같은 훈련부터 바꾸었다. 무엇보다 체력훈련을 우선시했다.

“스피드와 파워를 동시에 요구하는 종목들은 체력이 우선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기술이 비슷한 수준일 경우 체력에서 우위를 보이는 팀이나 선수가 좀 더 좋은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죠.”

그렇다고 선수들을 혹독하게 조련하지는 않는다. 훈련을 시작하기 전 그는 선수들



김희우 감독은 학교의 전폭적인 지원이 좋은 성적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말했다.

에게 그날 훈련의 목표와 양을 분명히 설명하고 자연스러운 동기부여를 한다고 했다. 또한 선수마다 수준이 다른 만큼 각각 쉽게 도달할 수 있을 만큼의 훈련량을 제시한다. 팀 구성원 전원이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이렇게 주 단위나 월 단위로 조금씩 훈련량을 늘려가는 사이, 선수의 실력은 물론 자신감까지도 높아지게 된다. 그 결과 한 수 위로 통하는 실업 팀을 상대로도 대등한 경기를 펼칠 만큼 우수한 경기력을 갖게 되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수준의 아이스링크를 갖고 있는 팀은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 밖에도 제가 부임한 이래 학교 측에서 물심양면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셨어요. 올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훈련과 지원이 시너지를 발휘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팀, 최고의 감독**

사실 우리나라 아이스하키계에서 김희우 감독만큼 다양한 이력을 지닌 인물도 드물다. 처음 아이스하키와 연을 맺은 것은 경성중학교 재학시절이었다.

“중학생 시절 동대문 아이스링크에 경기를 보러 간 적이 있어요. 박진감 넘치는 경기와 남자다운 선수들의 모습에 완전히 매료되었죠. 스케이팅이라면 어려서부터 타 왔기에 남들보다 진도가 빨랐습니다.”

수비수로 첫걸음을 뗀 이후 경성고등학교 시절에는 '초고교급 선수'로 통할 만큼 부쩍 성장했다. 대학에 진학할 때에는 대다수가 선호하는 연세대 대신 고려대를 선택했다고 했다. 그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도전이었다.

“제 능력이 연세대를 상대해서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보고 싶었어

요. 또한 고려대학교의 우직한 교풍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상대적으로 선수층이 얇은 탓에 많이 고생했지만, 꾸준히 동료들과 호흡을 맞추다보니 3학년 때부터는 반대로 우리 고대가 연대를 압도하는 계임을 많이 했지요.”

대학을 졸업하고는 대학원으로 진학했다. 학문에도 매력을 느껴 박사과정까지 밟을 예정이었지만, 모교인 경성고등학교 감독직을 제의 받았다. 실업 팀 선수로서 본격적인 활약은 그 다음이다. 창단 2년째가 되는 실업 팀 '석탑'의 선수로 스카우트되었다. 경기를 뛰면서도 코치 역할을 병행하는 '플레이 코치'로서 활동했다. 이어서 본격적인 지도자의 길로 들어서 여러 실업 팀과 국가대표 감독을 지냈다. 또 국제심판으로 빙판 위에 서기도 했다. 요컨대 아이스하키와 관련한 거의 모든 역할을 경험해본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경험들은 감독으로서 팀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든든한 밑바탕이 되었다.



“  
디테일을 다듬어  
내년에는 더 완벽한 팀을  
만들 계획입니다.”

#### 진심으로 소통한다

선수에 이어 감독으로서도 훌륭한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지만 김 감독 스스로는 자신에 대한 평가에 냉정하다.

“제 경우에는 많은 행운이 따랐다고 생각해요. 저 스스로 돌아봐도 여기까지 오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느끼니까요. 저와 가까운 이들 중 현재 감독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저와 1년 선배인 연세대 윤성엽 감독 밖에 없어요.”

김희우 감독의 말 속에는 냉정한 현실을 겪어온 안타까움이 배어 있었다. 아이스하키의 저변이 넓지 않은 탓에 대학을 졸업한 모든 선수들이 실업 팀으로 진출하여 선수생활을 이어가지는 못한다. 실업 팀을 거쳐 지도자가 되기란 더더욱 어렵다. 누구보다 냉정한 현실을 잘 알아서일까? 경기장 밖에서 그는 선수들의 앞날을 함께 고민하는 '큰 형님'이 된다.

“시즌이 끝나면 주로 선수들과 개인 면담을 합니다. 특히 3, 4학년 선수들과는 진로를 두고 많이 고민합니다. 가능성이 보이는 선수들에게는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해주고, 그렇지 않은 선수들에게는 다른 길을 놓고 진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요.”

다소 냉정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학생을 지도하는 그의 입장에서는 능력이 안 되는 선수를 끝까지 끌고가는 것도 잘못된 지도다. 적어도 졸업한 다음날 '오늘은 뭐하지?' 하고 생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기도 하다. 물론 한 사람의 장래가 걸린 사안인 만큼 선수와 부모의 의견까지 종합해서 결정한다.

#### 눈앞의 욕심 대신 더 큰 미래를 그린다

김희우 감독의 내년 목표가 궁금했다. 그런데 연전연승을 이끄는 명장답지 않은 겸손한 답이 돌아왔다.

“내년 목표는 올해의 7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른 팀들도 더 많은 준비를 해서 나올 테고요. 숫자로 표현되는 성적에 대한 욕심 대신 우리 팀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디테일한 부분까지 착실히 준비할 예정입니다.”

신입생 선발에 있어서도 당장 두각을 드러내는 선수들보다 앞으로의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미 선발을 마친 내년 신입생들 중 절반은 체격 조건과 운동 능력을 기준으로 선발했다고 한다. 아이스하키 선진국의 선수들과 대적하자면 기본적인 신체 조건부터 달라야 한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는 현재 맡고 있는 팀 만큼이나 대한민국 아이스하키의 앞날까지도 마음 깊이 여겼다.

“나가노 동계 올림픽 이후 일본은 오히려 아이스하키의 인기가 하락했어요.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으려면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마땅한 투자 없이 '헝그리 정신'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낸다는 것은 다 옛날 이야기예요.”

내년이면 지천명의 나이로 접어드는 김 감독은 하늘이 그에게 내린 명을 이미 마음속에 새긴 듯했다. 더 큰 미래를 그리는 김희우 감독은 '그 다음'을 위해 벌써부터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 지성

Sapiens Inteligencia

고려대만의 열정적인 지성 탐구를 공개합니다.

오랜 역사와 함께 진리 탐구의 끝에

다다른 현재 고려대의 인텔리겐시아,

지금 시기에 놓쳐서는 안될 지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여드립니다.

지성에 의해서만 도달할 수 있다는

이데아의 세계, 절대적 지식

- <국가론>, 플라톤





## ‘동해’가 있는 세계지도를 위하여 설립 20주년 동해연구회 박노형 교수

1990년대 초까지 전 세계지도와 정부 문서, 교과서에 동해는 대부분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었다. 동해와 일본해의 병기는 전체 0.2%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금은? 병기율이 무려 28%에 달한다. 이런 경이적 변화가 일어나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고 그 중심엔 동해연구회장으로 있는 박노형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있었다.

### 동해연구회 소개 부탁드립니다.

동해연구회는 국제사회에서 일본해로 통용되고 있는 동해의 지명 회복을 위해 1994년 11월 외교통상부 등록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동해 지명 관련 국내·국제 세미나 개최와 UN지명전문가회의, UN지명표준화회의, IHO총회 등과 같은 지명 관련 정부 간 국제회의의 정부 대표단 자문을 맡고 있으며 동해 지명 관련 홍보 자료 및 지도 제작·배포 등의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동해연구회가 국내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활동을 드러내기보다 다소 조용히 활동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활동해 왔기 때문입니다.

### 동해연구회를 설립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1990년대 초반 국제사회에서 유통되던 지도는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제작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의 행사에서 사용되던 지도에도 동해가 ‘Sea of Japan’이라 표기되어 있기 일췌였습니다. 1993년경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열렸던 외교부 국제 행사에서도 역시 동해가 ‘Sea of Japan’으로 표기된 지도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이 <동아일보> 기사에 대대적으로 실려 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아마, 국가적으로 동해 표기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합니다. 그 이후 지리학자, 역사학자, 언론인, 그리고 국제법 담당자인 제가 포함된 20여 명이 모여 동해연구회가 조직되었습니다.

### 어떤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시는지요?

먼저, ‘바다 지명 국제 세미나’가 있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동해는 국제적으로 관심을 끌 주제가 못됩니다. 그래서 ‘바다 지명’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해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의 지리학자, 지명 전문가, 역사학자들을 모았습니다. 여기에서 동해 지명 병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국제 전문가들을 설득했고 자문도 구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이해하는 전문가들을 점차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도 제작사와 학교에 접촉해 동해 병기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지도는 서로 베껴 만들어지고, 베껴지는 지도는 영향력 있는 지도죠. 그래서 영향력 있는 지도를 제작하는 지도 제작사를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에서는 지리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학생들이 동해가 병기된 지도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도 설득하고 있습니다.

### 동해연구회는 동해 단독 표기가 아닌 병행 표기(이하 병기)를 주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본해’ 대신 동해를 써야 한다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동해’로 표기하고 싶은 만큼 일본 사람들도 ‘일본해’



2014년 10월 27일 경주에서 열린 제20차 바다 지명 국제 세미나에서

로 표기하고 싶은 것은 마찬가지로 아니겠습니까? '일본해'의 단독 표기가 부당한 것처럼 동해의 단독 표기도 부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활동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리고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지요?**

정부의 지원과 사회적 관심에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우선, 세미나 개최 비용이 항상 지원되는 게 아닙니다. 지원을 해주던 기업도 일본과 거래하게 되는 등 변화가 생기면 지원을 중단한 경우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가 정부 활동을 대신하고 있다고 해서 정부에서든 기업에서든 지원을 그냥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행사를 열어 심시일 반 도움을 받거나 프로젝트를 용역화해 일을 따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률, 국제정치, 지리, 역사, 홍보 분야 전문가들이 모두 개인 시간을 쪼개가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압력을 받은 적은 없었나요?**

압력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활동을 상당 부분 신경 쓰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세미나나 행사를 하면 직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20여 년간 지치지 않고 계속된 노력을 할 수 있었나요?**

연구회가 오늘날까지 오는 데 기여한 공로자분들 덕분입니다.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이 산파역을 해서 2대 회장까지 역임해주셨고, 전임 회장인 이기석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금도 개인 사무실을 제공하며 물심양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성재 경희대 교수도 연구회의 국제적 활동에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앞에서 길을 잘 터놓아준 분들 덕분에 세대를 이어 사명감을 갖고 일관되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전원 무보수로 시간과 열정을 바쳐 온 우리 이사회분들께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교수님께 동해 병기란 어떤 의미인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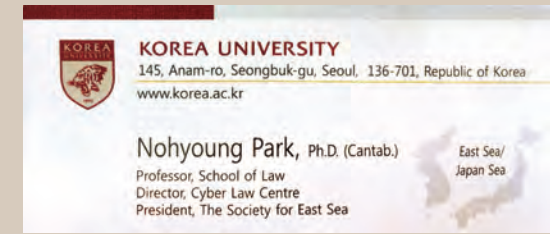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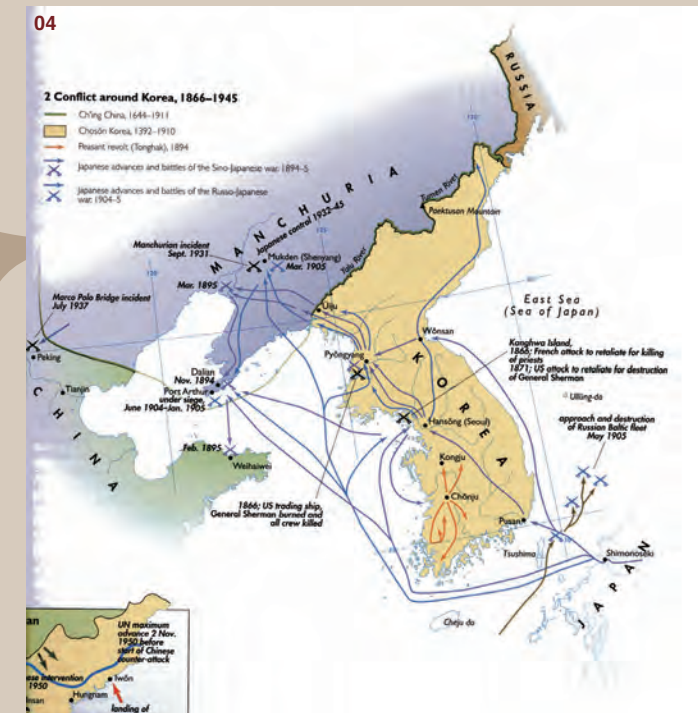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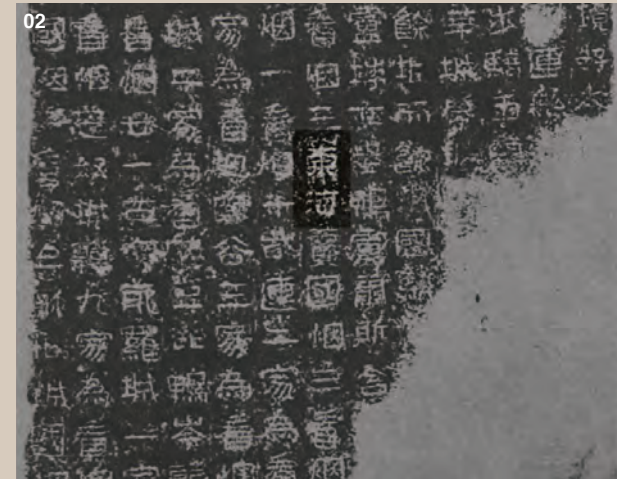
20년 전에는, 동해연구회 활동을 우연하게 시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름이라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일제 식민지 말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꿔야 했던 뼈아픈 과거가 있었지요. 사람의 이름이든 지명이든, 이름이라는 것은 정체성이고 문화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동해도 '동해'라는 우리 식의 이름으로 불릴 수 있어야 하고, 국제사회에서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동해연구회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동해 병기에 대해 미국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국제사회 여론의 중심은 아직 미국에 있습니다. 현재는 미국 정부가 '일본해' 단독 표기를 지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 주 등 몇 개의 주 정부에서는 동해를 병기해야 한다는 작은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지만요, 미국은 '한 지형, 한 지명 원칙'을 들며 동해 병기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국가와 국가가 접해 공유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지난 6월, 동해연구회는 '워싱턴 DC Think Tank(정책 현안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제시하고 정부나 의회의 정책 결정 과정에 입김을 행사하는 정책연구기관)'에서 처음으로 동해 병기의 정당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사소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 상대로 동해 병기의 필요성을 알리는 활동에 박차를 가해 동해 병기율을 한층 높일 것입니다.



“ 이름이라는 것은 정체성이고 문화입니다. ”



01 『삼국사기』권13 고구려본기 시조 동명성왕조의 동해(東海) 관련 기사 02 414년에 세워진 광개토태왕릉비에 기록된 동해(東海) 03 『Webster's Concise World Atlas』, Barnes & Nobles, 2002 04 『The Times Complete History of the World』, Times Books, 2004 05 동해와 일본해가 병기된 지도 그림이 들어간 박노형 교수의 명함의 일부

## 디지털 경제 시대의 필수 언어 컴퓨터 코딩 교육 김현철 교수

컴퓨터 프로그래밍 방법을 배우는 '코딩 교육'이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해 말 최문기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소프트웨어 혁신 전략' 보고서를 통해 '코딩 교육'을 창의적인 인재 육성의 핵심 과제로 지목한 바 있다. 하지만 코딩 교육에 대한 우리 인식 수준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김현철 컴퓨터학과 교수는 한시가 시급한 일이라고 말한다.



### 컴퓨터 코딩 교육이 왜 필요한가요?

2012년 영국의 마이클 고브 교육부 장관이 앞으로 초등학교 과정부터 컴퓨터 코딩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는 '코드의 해' 선포와 함께 포럼이 열렸고요. 영국은 200년 전에 산업혁명을 이루었던 나라죠. 산업혁명은 농업경제 중심에서 산업경제로 재편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정량적 사고가 중요한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영국은 수학과 과학을 학교 커리큘럼에 포함시켰어요. 그리고 전 세계가 이를 따라갔죠.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디지털 경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새로운 사고관과 교육 방식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정보적 사고를 갖춘 인재를 기르기 위해 컴퓨터 코딩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 그런데 '컴퓨터 코딩'이라 하면 어떤지 어렵고 따분한 과목일 것 같습니다.

예전의 프로그래밍 언어는 실제로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등장한 코드 언어들은 레고 블록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레고 블록을 살펴보면 쌓는 방법이 네 가지 정도로 단순합니다.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 비행기가 되기도 하고 차가 되기도 하죠. 코드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스크래치'와 같은 언어는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초등학생들도 쉽게 배우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컴퓨터 코딩의 교육을 둘러싼 논란이 치열합니다.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 코딩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프로그래머나 개발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듯 디지털 경제 사회에 알맞은 사고력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죠. 코딩 교육을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제조업 중심의 산업경제 시대의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만들어야 돈이 생기지 않냐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전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회사들은 주로 디지털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공장이 없다는 점이죠. 앞으로는 이런 기업들이 세계 경제를 주도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시작하는 교육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0년 후를 내다보면 컴퓨터 코딩 교육이 절실하고, 또 시급합니다.

###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요?

영국의 경우 올해 9월부터 '컴퓨팅'이라는 과목명으로 의무교육이 시작됐습니다. 만 5세부터 16세까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변 유럽 국가들이 이를 따르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지난해 12월에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 코드 교육에 대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중국 등 우리나라를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 코딩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미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도 무척 높은 편입니다.



김현철 교수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알맞은 사고관을 키우는 데 코딩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문제는 입시 중심의 교육 과정입니다. 전반적으로 입사와 관련 없는 과목을 왜 만들고 가르쳐야 하는지 인식부터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참 창의력을 길러나가야 할 아이들이 국영수 위주의 학원을 돌고 있고요.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실시했던 컴퓨터 교육도 컴퓨터 활용능력에 초점을 맞춘 선택 과목이었습니다. 제조업 중심 사회에서의 인재 육성 방침에 준하는 내용들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그마저도 워드나 인터넷에 익숙해진 후에는 학생들의 선택률이 낮아졌습니다. 사회 전반의 관심 수준이 낮으니 대학의 컴퓨터 관련 학과 지원률도 떨어졌고요. 입시 위주의 교육에 익숙해진 학생들에게서 적극적인 연구 자세를 찾아보기도 힘들었습니다.

### 이처럼 중요한 코딩 교육,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우리나라도 2018년부터 컴퓨터 코딩을 중학교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토록 인식이 부족한 환경에서는 거의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발맞추어 앞으로는 대학 교육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커리큘럼과 지도 방식 모두가 바뀌어야 합니다. 고려대의 경우 10년 전부터 '데이터로 표현하는 세상'이라는 수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정보대학장님을 중심으로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 신입생들에게 프로그래밍을 쉽게 가르치는 방법을 고민 중이고요. 커리큘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디지털 환경에 알맞은 사고방식부터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컴퓨터학과 수업에 스마트 캠퍼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소셜 러닝'을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협업과 공유를 통해 학습 효과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지도하는 것이죠. 융합의 시대를 주도해 나아가는 데 꼭 필요한 역량이기 때문입니다.

과잉 진단의 폐해를 밝히다

# 갑상선암 조기 검진의 위험성 연구

## 안형식 교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검진에도 부작용이 있다면? 더구나 이것이 암에 있어서라면? 꽤나 충격적인 이야기다. 안형식(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팀은 논문 〈한국의 갑상선암의 검진과 진단율〉을 통해 증상이 진행되지 않는 암을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치료할 경우 각종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 갑상선암 발생률이 1993년보다 15배 이상 증가한 원인을 조기 검진으로 지목한 최초의 연구다. 연구는 중요성을 인정받아 의생명과학계 최고 학술지 〈뉴잉글랜드의학저널(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이하 NEJM)〉 최신호에도 소개됐다. (NEJM)은 피인용지수(F)가 54.4로 '셀'(33.1), '사이언스'(31.4), '네이처'(42.4) 등보다도 훨씬 높은 학술지다. 안형식 보건대학원장과 나눈 올바른 건강검진과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담는다.



**원장님의 논문 〈한국의 갑상선암의 검진과 진단율〉이 〈뉴잉글랜드의학저널 (NEJM)〉에 소개되었습니다. 소감이 어떠신지요?**

영향력 있는 저널에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게 돼, 매우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은 무거웠습니다. 이번 연구는 '병을 낮게 하는 발견'은 아닙니다. 조기 건강검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것이 논문으로서의 가치는 있겠지만,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연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의 주목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논문에는 고려대학교 근거중심의학연구소 김현정 연구교수와 다트머스 대학 길버트 웰치(Gilbert Welch) 교수의 이름만 기재되었는데요. 저희 3인이 연구의 주축이긴 했으나, 함께 연구를 도운 조교들도 있었습니다. 저자 기재가 가능한 인원이 3인으로 제한돼 이렇게 기재할 수밖에 없었네요. 연구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조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번 연구를 시작하셨는지요?**

건강검진의 효과에 대해 세계 의학계에서 많은 회의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암 검진에 대해 논란이 많았죠. 전에는 당연히 건강검진이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봐 왔습니다. 그러다 몇몇 나라들에서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의 조기 건강검진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이 문제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심적인 어려움이 가장 컸습니다. 갑상선 전공의들을 불편하게 했기 때문이죠. 제 연구는 사실 갑상선 치료에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니라 검진에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상선을 전공한 것도 아닌 제가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 그분들을 다소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자료가 부족했던 것도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료가 완벽하지 못해 일부는 추정을 해야 했습니다.

**갑상선암 증가가 다른 이유도 아닌, 조기 검진이라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어떤 원리 때문인지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갑상선암을 포함한 위에서 말했던 몇가지 암들은 그것들의 세포가 작을 경우, 모두 사람을 죽게 만드는 암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갑상선암이 가장 그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잠재적인 암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갑상선암의 경우 여성 전 인구의 1/3정도가 가지고 있을 정도죠. 부검을 해보면, 다른 병 때문에 사망했는데 갑상선암이나 유방암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러니 작은 크기의 갑상선암을 불필요하게 조기 치료할 경우 오히려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모든 치료에는 효과와 부작용이 함께 따른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필요량보다 많거나(항진증) 적으면(저하증) 인체에 문제를 일으키지요. 인체에 필요한 양의 호르몬이 갑상선에서 분비되어야 하는데, 이 기능이 말을 듣지 않으면 갑상선 약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약의 정확한 적정 복용량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한편 수술을 하게 될 경우 합병증의 위험도 있습니다.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 성대 마비(일시적일 수도 있습니다.)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장기를 떼어버린다는 것은 인체에 큰 데미지를 주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여성에게 더욱 큰 문제가

가 됩니다. 이렇게 약에도, 수술에도 모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엑스레이만 찍어도 방사선에 노출되는 겁니다. 따라서 치료를 결정할 때에는 의사와 환자 모두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갑상선암의 경우 일정 사이즈 이내의 크기라면 수술하지 않고 관찰하는 것을 권고한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조기 수술이 이토록 많이 이루어진 건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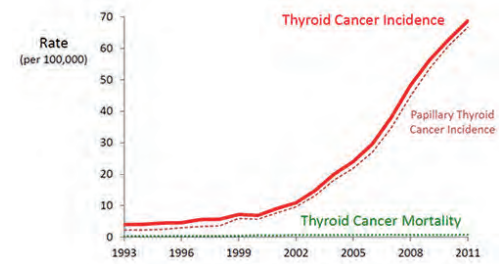
작은 사이즈의 갑상선암세포라도 수술을 원하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사이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수술이 불필요하다 여겨지는 사이즈에 대한 의견은 의사들에 따라 각기 다릅니다. 현재, 작게는 0.5cm, 크게는 1.5cm에 이르기기도 합니다. 상당수 의사들이 일정 사이즈 범위 내의 갑상선암은 환자에게 관찰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강검진이 발전하면서 크기가 매우 작은 암들까지 발견해내게 되었고, 사이즈가 작더라도 암은 암이기 때문에 암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환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환자들이 수술을 원한다면, 의사들이 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검진이 고도로 발전했거나 또 검진을 자주 하면서 작은 암들을 빨리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이 조기 수술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조기 검진은 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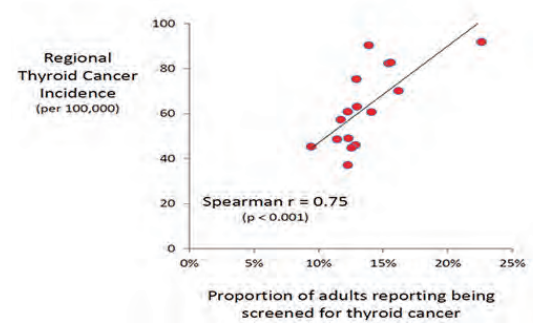
제가 갑상선 분야를 전공한 전공의가 아니라서 이야기를 하기 다소 조심스럽습니다만, 잦은 건강검진을 장려하는 분위기는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몇가지 특정 질병의 조기 건강검진이 불필요하다는 건데요. 특히, 갑상선암은 조기 검진과 수술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와 조기 검진 및 수술을 할 경우의 위험성 등에 대해 잘 알려주는 것입니다. 무증상일 경우 일부러 갑상선암을 위한 검진은 하지 말 것, 검진 후 갑상선암세포가 0.5cm 이하라면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니 수술 시행을 신중하게 고민할 것을 당부하고 싶네요. 작은 암세포를 발견했어도 수술을 바로 하지 않고, 6개월~1년간은 암이 커지는지 지켜보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합니다.

**이밖에 하고 계신 연구나 다음 연구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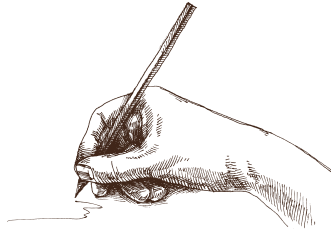
연구해야 할 거리가 너무나 많지만,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건강검진이 사회에 가져올 이득과 부작용에 대한 연구를 더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료 서비스의 구체적인 효과와 우리가 의료 서비스를 잘 이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사회의 자원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투여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필요 없는 병원을 만들고 확대하자는 '포괄 간호 서비스' 관련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들은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갑상선암의 발생은 1990년대 경미하였으나 2000년 추부터 급속도로 증가되었다. 반면 갑상선암으로 인한 사망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과잉 진단에 대한 특징)



지역별 갑상선암에 대한 검진율이 증가할수록 갑상선암 발생율이 증가되어 깊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상관계수=0.75)



**당뇨 환자의 눈 관리**

허걸 외 지음  
변형 크라운판 | 울컬러 | 232쪽 | 3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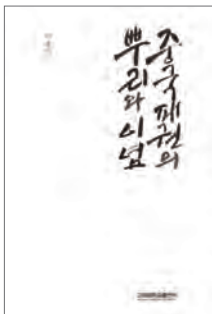
안과학의 권위자 허걸 교수와 의과대학 안과학교실이 당뇨에 의한 눈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위해 펴낸 일상에서의 '눈' 관리 지침서다. 당뇨 환자의 눈 합병증 발병과 자연 경과 현상에서부터 합병증의 원인 및 증상을 설명하고, 이들 질환의 완화 및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과 식이요법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당뇨 합병증을 이겨낸 사람들의 경험담을 자세히 담고 있다.



**Essentials of Korean Culture**

손호민, 전상이, 정희정 엮음  
신국판 | 양장본 | 464쪽 | 29,000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 또는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국 문화를 전공하려는 외국인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저술한 책이다. 《한국 문화의 이해》의 영어판으로, 2014년 현재 시점에 맞추어져 저술되었다. 한국어판과 더불어 외국인들에게 한국 문화에 대한 최고의 교수 자료로서 손색이 없을 것이다.



**중국 패권의 뿌리와 이념**

이춘식 지음  
신국판 | 양장본 | 376쪽 | 2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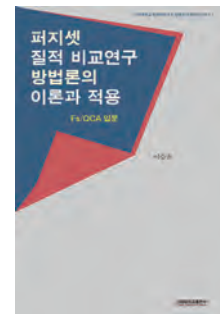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수립된 한 제국의 동아시아 패권 장악과 천하일국의 봉건적 세계 질서 수립의 실체, 성격, 의미를 조망한 책이다. 동아시아의 전통적 외교 관계인 조공의 실체와 성격 그리고 의미를, 한 제국의 입장과 주변국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밝히고, 이를 통해서 조공 관계로 수립되었던 동아시아 패권 관계의 실체와 성격까지 밝히고 있다.



**소통 2 - 문화, 사회, 과학 속에서**

고려대학교 학문소통연구회 지음  
신국판 | 328쪽 | 18,000원

분과 학문 간 대화와 토론으로 통합적 연구 주제와 방법을 발굴하고 확산시킨다는 취지로 결성된 학문소통연구회에서 《소통 - 학문 사이의 경계를 넘어》에 이어 두 번째 학문적 결과물을 내놓았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연구회의 워크숍과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원고를 가운데 총 10편의 글을 엄선해 3부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퍼지셋 질적 비교 연구 방법론의 이론과 적용**  
- Fs/QCA 입문

이승운 지음  
변형 국판 | 108쪽 | 9,000원

다양한 사회과학의 학문 영역, 특히 비교 연구를 실시하는 연구자 및 대학원생들에게 퍼지셋 질적 비교 연구 방법론을 소개하는 데 목적을 둔 실용서이다. 퍼지셋 질적 비교 연구 방법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주요 내용 및 원리,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사용법에 대한 매뉴얼 및 설명, 방법론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지성의 전당'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아름다움.  
110년의 시간을 흘러 보존된 우리의 문화이자 정신인  
고려대학교 건축이야기. 여기에 담았습니다.  
당신 기억의 그곳과 지금의 그곳 그리고  
앞으로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Sapiens Architecture

건축



| 우당교양관 |



CJ International House



호연4관

## 고려대학교 지성의 터전 안암캠퍼스 안암학사, 세종캠퍼스 호연학사

고려대 안암캠퍼스의 안암학사는 1980년 완공되어 현재 총 9개의 건물로 이뤄졌다. 호연학사는 1980년 충남 조치원 서창리에 건립된 세종캠퍼스에 1989년 개관했다. 기숙사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고려대학교는 오늘도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 고려대학교 기숙사의 탄생

1970년대 기숙사의 건립은 학생들의 가장 큰 요구 사항이자 학교 측의 숙원 사업이었다. 1978년 1월 고려대학교 사무처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오던 기숙사 건립을 확정했다. 본교 캠퍼스 내에 대지 5천 평을 확보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412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건립을 계획했다. 1980년 3월, 학생들의 염원과 고려대학교 숙원 사업의 하나였던 안암캠퍼스의 기숙사가 완공됐다. 2,750평의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립된 안암학사는 몇 차례 공사가 연기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한 방에 3명씩 공동 생활을 하게 돼 있는 기

숙사에는 당시 신입생이 340명, 4학년이 122명 입학했고 나머지 75명은 3학년 학생 중 단과대학 정원 비례로 평점 3.0 이상인 학생을 추천 받아 입학하도록 했다. 이듬해 1980년 7월,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을 서창리(현 세종특별자치시)에 서창캠퍼스를 건립하면서 1989년 2월 서창 기숙사를 완공하여 3월에 개사했다. 남학생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에 연건평 2,400여 평, 1실을 3명이 사용했고, 564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 1994년 2월 개관한 여학생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에 연건평 1,030평의 건물로, 244명을 수용할 수 있었고 1실을 4명이 사용했다. 1995년 12월 안암 기숙사는 '안암학사'로, 서창 기숙사는 '호연학사'로 명칭을 변경했다.



여학생기숙사



국내기숙사2동(외국인기숙사)



국내기숙사동



호연학사



정의관



자유관



안암학사 관리운영팀



CJ I-House Double in Quint



식당



호연학사 생활지원팀



휘트니스 클럽



세탁전문점



쿠�� 클래스



스카리카페



독서실



밴드실

## 안암학사

안암학사는 고려대학교 내에서 가장 경관이 아름답고 아늑한 고려대학교 뒷산에 위치한다. 총 연면적 54,540㎡의 현대식 건물 총 9개로 구성돼 있다. 국내 기숙사는 1동, 2동, 3동, 관리동과 전신 2인실로 구성된 에듀21고려대학교학생기숙사(프린티어관)으로 총 5개의 건물이 있다.

외국에서 온 학생들을 위한 국제기숙사는 다수의 국내 사생과 외국인 사생 63명이 섞여 있는 국내기숙사2동과 2005년 3월 고대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준공된 CJ I-House가 있다. CJ I-House는 총 224명의 사생과 48개의 교원 숙소(Guest House)로 이뤄져 있다. 2013년 8월에 준공된 안암 글로벌 하우스(Anam Global House)는 최근 수요가 점점 증가하는 외국인 사생들 및 작년 1학기까지 기숙사 입사가 불가능했던 대학원생들을 위해 건설됐다.

안암학사는 중앙 냉·난방식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1실에 1~3명씩 생활하고 있다. 사생들의 복지시설로는 식당 외에 헬스실, 휴게실(PC 설치), 독서실, 피아노실, 탁구장 등이 갖춰져 있다. 각 사생실에는 개인 침대, 책상, 옷장이 있고, 유선 인터넷은 물론,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수신용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어 언제든지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외부와의 연락이 가능하다. 이밖에 국제기숙사에는 무슬림 국가 사생들을 위한 기도실도 마련돼 있어 사생들의 종교 생활도 배려하고 있다. 또한 한식이 입에 맞지 않거나 고국의 음식이 그리운 외국 사생들을 위해 공용 부엌 및 주방을 설비하여 학생들이 기숙사 내에서 개인적으로 요리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돼 있다.

### 안암학사 기숙사에선 연중 어떤 행사를 진행하나요?

1학기에는 사생체육대회를, 2학기에는 기숙사 축제인 호랑제를 개최합니다. 그 외에 쿠�� 클래스와 무료 맥주 파티, 과일 파티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 안암학사만의 자랑거리는 무엇인가요?

국내 대학 기숙사 중 최초로 2013년 1학기부터 통금시간을 전면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여학생 기숙사는 안전을 위해 정문을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폐쇄합니다. 그리고 저희 안암학사는 성북경찰서 특별순찰 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사생들의 안전을 최대한도모합니다.

### 안암학사 사생들에게

안암학사는 앞으로도 보다 규모 있고 내실 있는 기숙사로 꾸준히 발전하면서 시대적 변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시 돌아가고 싶은, 사생들에게 좋은 추억만을 남길 수 있는 기숙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호연학사

친환경적인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호연학사는 1989년 2월 남자 기숙사인 자유관 개관을 시작으로 1994년 여자 기숙사인 정의관, 2004년 2월엔 9층의 초현대식 기숙사 건물인 진리관이 개관했다. 진리관은 출항하는 배의 모습을 본떠 만든 카페테리아를 축으로 남학생 기숙사와 여학생 기숙사로 나뉜다. 2009년에는 호텔 수준의 시설 환경을 갖춘 호연4관이 개관하면서 호연학사는 현재 총 4개의 관으로 구성돼 있다. 2014년 총 정원은 2,591명으로 남학생 1,567명(60%), 여학생 1,024명(40%)이 입실하여 생활하고 있다.

호연학사 내에는 사생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세미나실, 휴게실, 독서실, 요가실, 피아노실, 밴드실, 매점 등 기타 부속시설을 갖추고 있다. 자유관을 제외한 정의관, 진리관, 호연4관에는 냉/난방 및 엘리베이터 시설이 되어있으며, 전관에 LAN 시설이 있어 통신과 정보교환이 자유롭다. 또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의 '글로벌 리딩 캠퍼스(Global Leading Campus)' 비전 아래 기숙사 내 오직 영어로만 소통할 수 있는 구역인 스카리카페를 운영한다. 스카리카페는 방문사생에게 간단한 음료와 토스트가 제공되며 친구들과 영어로만 대화하는 공간으로 교환학생과 사생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진행하면서 국제적인 마인드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호연학사에선 연중 어떤 행사를 진행하나요?

가장 메인 축제인 오픈하우스는 5월에 개최합니다. 오픈하우스 날에는 학교

전 구성원들에게 중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사생실 개방, 가요제, 동아리 공연, 클럽 파티 외 연예인 초청 공연 및 응원제 등 다양한 세부 행사를 진행합니다. 10월에는 스카리카페에서 국제사생들과 어울려 할로윈 파티도 합니다.

### 호연학사만의 자랑거리는 무엇인가요?

호연학사에서는 사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나이트 가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심야 및 취약 시간대인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호연학사 외부 및 내부에 대한 경비원의 철야 순찰을 통해 통제 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사태, 음주사고, 소음, 폭력 등을 예방합니다.

### 호연학사 사생들에게

학사에서 생활하는 동안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그리고 호연학사가 지향하는 비전을 공유하며 자부심과 꿈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기 바랍니다. 고려대학교 교우들이 즐겁고 안전한 기숙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1



02



03



04

### 고려대학교 기숙사의 역사

| 1980년 3월, 총 공사비 20억 원, 연인원 54,000여 명 투입, 총 2,750평의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립. 한 방에 3명씩 공동생활을 하게 되어 있었던 기숙사에는 당시 신입생 340명을 비롯해 537명이 입사.

| 1989년 2월, 서창캠퍼스(現 세종캠퍼스) 기숙사가 완공되어, 3월에 개사. 연건평 2,400평 총 564명 수용 가능.

| 1989년 12월, 기숙사 E동 신축 공사 시작. 기숙사 E동은 640평 규모로 세워져 외국인 교수 기숙사로 사용되었으나 외국인 교수들은 학생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는 등 불편이 많아 대부분 교외에 거주하고 있던 실정. 이어 1994년 2월 외국인 학생 숙소 개조 공사를 완료, 외국 교환학생 및 외국인 교원들이 입사.

| 1995년 3월, 고시동 개관. 고시동은 연건평 800여 평에 사생 128명, 열람실 78명 수용 가능, 안내실, 휴게실, 강의실, 세미나실, 열람실 등 시설 구비.

| 1995년 12월, 안암 기숙사를 안암학사로, 서창 기숙사를 호연학사로 명칭 변경.

| 2005년 5월, 외국인 전용 기숙사 CJ인터내셔널 하우스 개관. 지하 2층, 지상 5층에 연면적 3,024평으로 교수 63명, 학생 258명 등 약 320명 수용. 학생실, 교수실을 비롯하여 세미나실, 카페테리아, 피트니스클럽 등 각종 편의시설 완비.

자료 협조 고려대학교 기록자료실

05



06



07



08

06 서창 여학생 기숙사 기공식 (1992. 04) 07 서창 여학생 기숙사 준공식 (1994) 08, 09 안암 기숙사 F동(고시동) 준공식 (1995)  
10 1990년대 후반 안암학사 고시동 11, 12, 13 1990년대 안암학사 전경



0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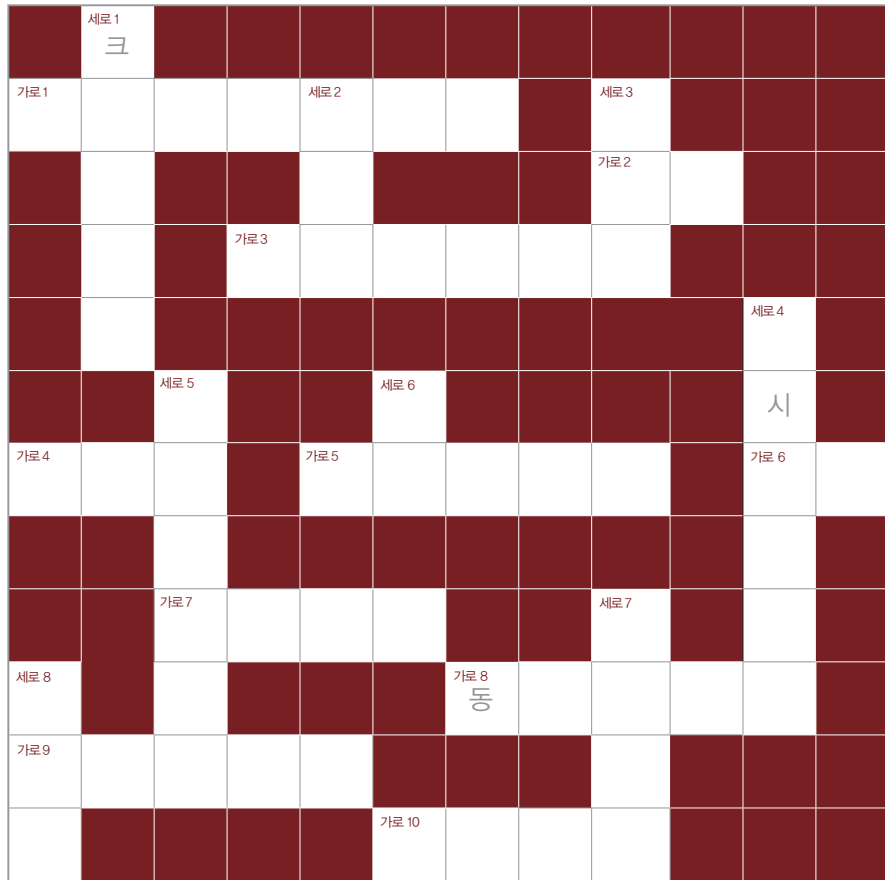
11

12



13





- 1 고려대가 학교 발전에 힘을 보태준 고액 기부자들에게 보답의 의미로 선보이는 초청 음악회는?
- 2 <서유견문>의 저자로 우리나라 대표 개화사상가인 유길준 선생의 서거 100주년, 갑오개혁 120주년을 기리는 유품 전시 특별전이 고려대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다. 이분의 호는?
- 3 지난 17년 간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연세대와의 열세를 이번 시즌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4승 2무로 완전히 뒤집어버린 운동부는?
- 4 고려대 개교 109주년, 안암캠퍼스 80주년을 기념하여 건축, 문학, 음악 콘서트를 개최했다. 행사 캐치프레이즈는 '요람에서 ㅇㅇ'이다.
- 5 산학협력촉진법령을 근거로 2004년 발족, 산학 협력 활성화와 세계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대학 부속 기관은?
- 6 디지털 경제 시대의 필수 언어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방법을 배우는 ㅇㅇ 교육이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올랐다.
- 7 74학번들의 입학 40주년 홈커밍데이 행사에서 부른 노래로, 74학번이 가장 사랑한 노래 1위로 꼽힌 곡은?
- 8 '동해'가 있는 세계 지도를 위하여 20년 동안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활동한 외교부 산하 사단법인은?
- 9 고려대 정신의 진정한 가치와 매력을 통찰한 시인 오탁번 명예교수의 시 제목은?
- 10 1995년 12월에 변경한 고려대 서울캠퍼스의 기숙사 이름은?



- 1 학교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정성으로 지속적으로 고려대 발전에 공헌한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수여하는 공로상은?
- 2 세종캠퍼스 기숙사 내에 있는 카페로, 방문학생에게 간단한 음료와 토스트가 제공되며 친구들과 영어로만 대화하는 곳의 이름은?
- 3 고려대는 11월 28일 여자ㅇㅇㅇ 창단식을 가졌다. 첫 번째 지휘봉은 유상수 감독이 잡았다.
- 4 회원 30명의 작은 교우회지만, 2007년부터 시작한 기부가 8년 동안 약 1억 원이 되었다. 지역 특성상 회원 대부분이 서문과 출신인 이 모임은?
- 5 고려대 개교 100주년을 기념으로 작곡된 곡명은?
- 6 <한경 비즈니스>가 선정한 '2014년 전국 로스쿨 평가'에서 사립대 부문 1위에 오른 전문대학원은?
- 7 1995년 12월에 변경한 고려대 세종캠퍼스의 기숙사 이름은?
- 8 고려대와 재단법인 플라톤 아카데미가 공동 주최하는 문학 대중강연 프로그램은 '인문학 ㅇㅇㅇ'이다.

정답은 66쪽에 있습니다.

# 문화

## Sapiens Culture

1935년 이후 인촌 김성수는 공직을 사퇴하고  
고미술품과 예술품 수집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문화·예술작품의 외국 반출을 막아야 된다면  
거액을 들여서라도 미술품, 서예 작품을 보존하였습니다.  
지성의 시대는 문화의 아름다움과 함께합니다.  
1905년부터 문화에 대한 애착을 이어온  
현 시대 고려대학교만의 문화를 보여드립니다.



고려대학교의 새로운 전통

# 크림슨 마스터즈 콘서트

크림슨 마스터즈 콘서트는 고려대가 학교 발전에 힘을 보태준 고액 기부자들에게 보답의 의미로 선보이는 초청 음악회다. 올해도 세 차례의 크림슨 마스터즈 콘서트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차츰 고대인의 새로운 전통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 고려대학교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행사

각 대학마다 기부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고려대학교의 크림슨 마스터즈 콘서트는 특색과 내실을 동시에 갖춘 모범 사례로 손꼽힌다. 문화예술 행사를 기부자 예우로 진행하는 대학은 국내에서 고려대학교가 유일한데다, 수준 높은 공연으로 관람자의 만족도도 매우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간 점검을 위해 2011년 6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개최에 대한 만족도가 96.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사가 주요 기업체 임직원 및 각계 주요 인사 등 향후 학교 발전에 기여할 이들에게 홍보 채널로도 활용되는 만큼 고려대학교의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학교 안팎의 평이다. 이 때문에 타 대학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한다.

## 2014 크림슨 마스터즈 콘서트

크림슨 마스터즈 콘서트는 개교 100주년이 되던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클래식 위주의 공연으로 진행되었지만, 2007년부터는 연 4회로 정례화되고 공연의 장르도 다양화되었다. 장소 역시 교내 인촌기념관에서 고정적으로 열리게 되었다. 무엇보다 이 시기부터는 재학생과 교직원의 문화예술 향유의 장



역할까지 겸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행사의 의미가 더 커졌다. 수준 높은 공연을 저렴한 비용으로 관람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입소문을 타 해마다 크림슨 마스터즈 콘서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4년부터는 연 3회로 횡수를 축소하는 대신 보다 많은 이들이 부담 없이 즐길 만한 대중적인 장르도 더했다.

실제로 올해 첫 공연에서는 라틴재즈음악이 연주되었다. 방송인 손미나의 진행으로 재즈 피아니스트 유리안과 로스 아미고스의 공연이 관객들의 흥을 돋웠다. 8월 28일에 열린 서른여덟 번째 콘서트는 리처드 용재 오닐의 앙상블인 디토가 주인공이었다.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젊은 연주자들로 구성된 디토는 그들에게 큰 영감을 준 작곡가 모차르트의 클래식에 신선함을 더해 연주했다. 이어서 올해의 마지막 공연은 우리나라 최고의 뮤지컬 디바 최정원이 장식한다. '뮤지컬 콘서트'라는 테마로 12월 22일에 진행될 공연은 <맘마미아>, <시카고>, <페임> 등 유명 뮤지컬의 명곡들로 채워진다.

## 2014년 크림슨 어워드

크림슨 마스터즈 콘서트와 함께 지난해부터는 '크림슨 어워드'라는 이름의 발전공로상을 특별히 제정했다. 이는 학교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정성으로 지속적으로 고려대 발전에 공헌한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는 '우정정보통신관'과 '우정간호학관' 건립에 기여한 이종근 부영그룹 회장이 크림슨 어워드의 수여자가 되었다. 또한 'KU-오정에코레질리언스센터' 기금 마련에 큰 힘을 보탠 민남규 자강산업 회장과, '하나과학관' 건립에 도움을 준 서중욱 대우건설 고문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아울러 2010년부터 매년 거액의 연구기금을 기부하며 농업 분야 연구를 선도한 이병만 경농 회장과 '명훈장학회'를 통해 30년이 넘도록 학생들을 지원해준 문숙 여사 역시 올해 준공된 '문숙의학관' 건립에 기여하여 크림슨 어워드의 주인공이 되었다.



02

CRIMSON MASTERS CONCERT

뮤지컬 디바 최정원의

Musical Concert



01 지난 8월 28일에 열린 콘서트는 리처드 용재 오닐의 앙상블 디토가 주인공이었다. 02 오는 12월 22일에 열리는 세 번째 공연은 '뮤지컬 콘서트'를 테마로 인기 뮤지컬 배우 최정원이 출연한다. 03 앙상블 디토는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차르트의 클래식을 중심으로 수준 높은 연주를 선보였다. 04 지난 봄에 열린 크림슨마스터즈 콘서트는 방송인 손미나가 진행을 맡았다. 05 크림슨마스터즈 콘서트는 후원자들은 물론 고대인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06 '라틴재즈여행'을 테마로 진행한 지난 봄 콘서트에서 재즈 피아니스트 유리안이 연주하는 모습.





## 새로운 시대를 위한 법조인의 양성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이 <한경 비즈니스>가 선정한 '2014년 전국 로스쿨 평가'에서 사립대 부문 1위에 올랐다. 전체 로스쿨 순위에서도 서울대에 이어 2위의 자리를 지켰다. 이번 평가는 로펌이나 대기업 법무팀을 비롯, 법조계 전반의 여러 실무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매긴 점수라 그 의미가 남다르다.

2014년은 로스쿨 출범 이후 여섯 번째 해였다. 헛수roman 따진다면 로스쿨이라는 법조인 양성 제도가 차츰 정착기에 접어들 때라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로스쿨의 그간 행보를 돌아보면 어렵게 출발하여 순조롭지 않은 과정들을 거쳐 왔다고 요약할 수 있다. 사법시험 존폐를 둘러싼 이견은 여전히 법조계 안팎에서 대립 중이고, 로스쿨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은 않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고려대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은 105년 역사 동안 닦아 온 명성을 잘 이어가고 있다. 변호사 시험에서도 높은 합격률을 보였고, 전문 로펌과 기업 법무팀 등 다양한 분야로 인재를 배출했다. 신영호 법학전문대학원장은 고대인의 전통이 큰 힘을 발휘했다고 그 비결을 밝혔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로스쿨 평가에서 사립대 1위에 올랐습니다.**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처럼 좋은 평가를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고대 법과대학의 전통이 큰 힘을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조건에도 여러 교수님들께서 힘써주셨고요.

이를 부지런히 따라준 학생들의 노력이 제일 컸겠지요. 여기에 선후배 사이의 끈끈한 유대 관계가 기여한 결과로 여깁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여러모로 로스쿨이 어려운 상황이라 들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요?**

사법제도 개혁이라는 큰 취지에서 로스쿨 제도가 출범했습니다. 국가가 주도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재정적 지원이 따라주지 못해 각 로스쿨마다 어려움이 큼니다. 비판 여론 중에는 비싼 등록금을 지적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장학금의 비중이 높기도 합니다. 우리 로스쿨 역시 등록금만으로는 장학금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일부는 후원기금이나 외부 장학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만큼 송구한 마음도 큼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졸업생을 배출한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로스쿨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리 법학전문대학원만의 차별화된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남들에게 그것을 '고대인의 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로스쿨 특성상 이미 다른 학교에서 학부생활을 거친 학생들이 많은데, 그들을 우리 고대인으로 만드는 데도 '의리' 덕을 많이 보지요. 실례로 '튜터'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졸업생들 중 자원을 받아 후배 학생들을 가르치는 제도예요. 그런데 자원자 60% 이상이 로스쿨을 통해 고대인이 된 이들이지요. 그런 모습을 보면 더 뿌듯함을 느낍니다.

**<한경 비즈니스>는 법조계 실무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로스쿨 순위를 매겼습니다. 특별히 실무와 연계된 교육 과정도 있나요?**

특별히 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현직 변호사 중 40여 분이 우리 로스쿨의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

신이 맡았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수업을 준비합니다. 또한 별도로 구성되는 실무교육자문위원회와 학사교육자문위원회는 고대 선배들뿐만 아니라 타 학교 출신 대형 로펌의 대표님들께서도 참여하십니다. 이 역시 학생들 지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지요. 또한 재학생들에게 다양한 인턴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올해는 3학년 학생들 중 30여명이, 2학년 중에서도 15명 정도가 벌써 대형 로펌으로 진로를 확정했습니다.

**원장님께서서는 법과대학 시절부터 고대인이십니다. 교육자가 아닌 선배의 입장에서 주로 어떤 조언을 하십니까?**

제가 학부생활을 할 당시만 해도 유신시절이라 요즘과 같은 학창시절을 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요즘 학생들이 부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뻑뻑한 생활을 하는 것 같아 염려가 앞서기도 하지요. 특히나 공부할 것이 많은 로스쿨 학생들을 볼 때 안쓰러운 마음이 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 다양한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때금씩 대포도 한잔 나누고요. 그들에게 눈앞의 어려움에 좌절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인생을 길게 보고 인생 설계도 낙관적으로 하라는 조언을 많이 합니다.

**어느 자리에서는 로스쿨 출신 법조인보다 CEO가 박수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재판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물론 우리 로스쿨 출신 중에서 사법부 지도자도 나와야겠지요. 그렇지만 세상은 넓고 법조인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많지 않던가요? 그래서 사내 변호사로 진출한 이들에게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업이나 협상 파트 등 다양한 분야도 경험해보라고 권합니다. 법적 소양을 갖춘 사람이 기업에서 역량을 발휘한다면 세상이 원하는 투명 경영도, 실질적인 법치주의도 더 가까워질 테니까요.

**그렇다면 앞으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어떻게 이끌어갈 예정인가요?**

지표만으로 2014년을 놓고 보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늘어난 로펌 합격자만큼 사법고시 합격자 수가 조금 줄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120명의 학생들을 모든 분야에 골고루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진로는 그 해의 바깥 환경이나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 최선의 답을 구하려고 지도교수님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고민은 로스쿨 제도 본인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모든 로스쿨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만을 놓고 고심하고 있지요. 하지만 로스쿨 제도가 정착하려면 각 학교마다 특색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각 분야별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많은 힘을 쏟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대법대의 전통과 고대인의 끈끈한 의리가 최고의 로스쿨로 선정된 비결입니다.

신영호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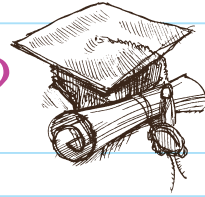


하얀 이불을 덮은  
**순백의 겨울 캠퍼스**

불현듯 찾아온 하얀 선물이 캠퍼스에 순백의 마법을 부렸습니다.  
눈 덮인 캠퍼스가 겨울 왕국에 온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네요.



# 당신에게 생명이란?



생명은 이어짐이다. 새 생명은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큰 힘이기 때문이다.

**박노형**(법학대학원 교수)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밝혀내야 할 분야. 그래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

**안형식**(보건대학원장, 예방의학과 교수)

존재감이다.

**박혜원**(74여자교우회장, 간호학과 74)

살아 있는 것은 사라진다. 그러니 살아 있는 동안 사랑하라.

**주철환**(아주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국어국문학과 74)

감사한 선물이다.

**조영봉**(변호사, 법학과 84)

내 생을 위해 열심히 사는 것.

**정용태**(스톤앤메이플 대표, 경영학과 84)

삶의 철학을 세우고 수행하는 과정. 삶의 철학이 없는 생명은 생명이 없는 존재와 같고, 삶의 철학이 있으나 수행하지 않는 생명은 무의미한 생명이다.

**김상식**(고려대 산학협력단장,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삶의 의무다.

**이창민**(고려대 세종캠퍼스 호연학사 사감장, 국어국문학과 교수)

같이 숨 쉬면서 느끼는 것.

**고태혁**(고려대 안암캠퍼스 안암학사 관리운영팀장)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니 잘 지키자. 생명이 있는 동안 자신의 유익과 남의 유익 모두를 추구하자. 주위의 비판에 좌우되지 말고 자기가 보람된다고 생각하면 행동에 옮기자. 생명이 다할 때까지 남을 즐겁게 하고 남을 높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한다.

**설홍수**(고대의대 미주교우회장, 의과대학 65)

# 지성시대 보이기

## Sapiens Trigger

고려대학교의 지성시대가 있게 한 실제 원동력,  
교내 다양한 기관에 대해 소개합니다.

\*trigger(트리거)

총의 방아쇠를 뜻하는 용어로서, 어떤 사건의  
반응·사건을 유발한 계기나 도화선을 의미한다.





2014년 11월 1일 Campus & RnD CEO Day 워크숍



##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으로 도약하는 KU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촉진법령을 근거로 2004년 발족한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의적 연구를 적극 지원, 이공계 중심의 연구 개발 환경을 개선하여 인문사회 분야의 산학 협력 활성화와 세계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세계로 도약하기 위해 고려대의 발판이 되고자 하는 기술지주회사 대표, 창업보육센터장을 겸직하고 있는 김상식 산학협력단장을 만났다.

2003년 9월 1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04년 2월 정지태 제1대 단장을 시작으로 발족되었다. 산학협력촉진법에 의거한 대학의 국가 과제 관리, 지적재산권 관리, 기술 사업화를 기반으로 지속적 연구비 수주 증대를 위한 산학 협력 및 산학 기획 능력 제고와 선진화된 연구비 관리 체계 수립, 연구자 친화적인 연구 환경 조성, 우수한 지식재산권 확보 및 산업화 능력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학과 및 연구 부문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입증하며 국내 대학 중 모범적인 산학 협력 대학으로 자리매김했다. 연구 지원, 성과 창출, 성과 활용 3가지 분야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연구비 관리 우수 기관(2008)’으로 인증받았고, ‘선도 TLO 부문 우수상(2009)’ 수상, 지난 2010년도에는 양질의 지식재산권을 등록해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았다. 2014 QS 세계 대학 전공 분야 평가에서는 17개 분야가 세계 100위권 내에 진입하면서 국내 사립대 1위를 차지했다. 교육부가 실시한 ‘BK21 플러스 사업’에서 국내 대학 중 가장 많은 10개 사업팀과 26개 사업단, 총 36개 사업단이 선정되기도 했다. 그리고 1996년 사립대학 최초로 지식재산에 대한 관리 개념을 도입하여 이에 부수되는 지식의 창출과 확산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지식재산의 핵심인 특허의 경우, 2013년 735건(해외 포함)을 출원했으며, 누적 등록 특허 건수도 2,473건(해외 포함)에 달한다.

### 세계를 선도할 미래 CEO를 위한 창업 교육

우리나라의 청년 창업은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특히 20대 창업의 경우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드물다. 이러한 원인의 하나로 국내 대학에서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전문적인 교육의 부재를 꼽는다.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이러한 한국 청년층에게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1999년부터 학생들의 기술 창업을 독려하는 창업보육사업을 실시했다. 현재는 예비 창업 기업 22개, 학생 창업 동아리 10여 개를 운영 중이다. 2008년 9월에는 국내 최초 ‘Campus CEO’라는 교양과목을 개설해 창업 이론과 실전을 가르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시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벤치마킹하여 2012년부터 창조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서울대, 연세대, 중앙대 등 국내 24개 대학에 보급됐다. 고려대학교 Campus CEO는 2008년 9월부터 현재까지 12기 총 1,0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현재 약 40~50개 이상의 학생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은 창업에 대해 관심이 많고 창업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싶어 합니다. 고려대학교는 교육기관이므로 학생들이 배우고자 하는 열망을 수용해야 합니다.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창업 교육을 Global Education Innovation 차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2014년 1학기에 고려대는 역시 국내 대학 최초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기술 창업 강좌인 ‘R&D CEO’를 신설했다. R&D CEO는 Campus CEO에서 축적한 경험들을 살려 대학원생의 연구 영역과 전문 지식을 토대로 한 창업 교육이다. 현재 대학원생들로부터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지난 학기 대비 두 배 이상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Campus CEO’와 ‘R&D CEO’ 창업 교육 과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업이 정신 함양과 창업입니다. 창업의 시기는 학생들의 인생 설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학생

시절에 창업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면 언제라도 창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산학협력단은 창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또 하나의 길을 제시하면서 학생들이 원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멘토 역할을 하는 겁니다.”

### 창업 전문가에게 배우는 창업 이론과 실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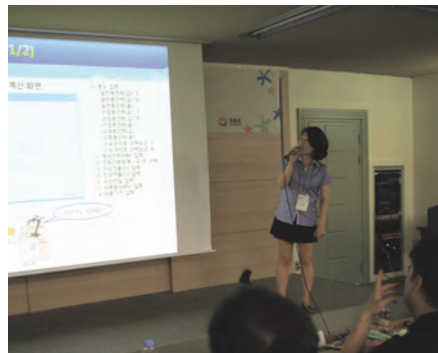
Campus CEO는 실제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론 과정과 실전 과정을 병행하여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교과 과정으로는 ‘Campus CEO I’(이론 과정), ‘Campus CEO II’(실전 과정) 두 개의 강좌를 운영한다. 이론 과정인 ‘Campus CEO I’은 수강생의 진로를 탐색하는 데 목표를 두며, 엔터테인먼트사 대표, 앱 개발업체 대표 등 현업에 종사하는 창업 전문가가 자신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한다. ‘Campus CEO II’는 학생들이 팀을 이뤄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다듬어 하나의 사업 아이템을 완성하는 데 목표를 둔 실전 과정이다.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R&D CEO’는 공학과 인문학 분야의 융합 지식을 바탕으로 기획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사업화 가능한 연구성과 도출을 유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창업 교육을 이수한 수료생들은 창업이나 취업을 통해 본 프로그램에서 갈고닦은 실력을 사회에 기여하는 데 사용한다. 고려대 산학협력단은 창업이 아이디어에서 그치지 않도록 매년 ‘창업경진대회’를 연다. 수상 팀에는 창업 공간(인큐베이팅 센터)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시제품 제작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KU Grant 프로그램’ 역시 2010년부터 46건의 아이디어

2014년 11월 1일 창업전문가와 예비 창업 준비 대학생이 멘토링을 하고 있다.





“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고려대학교의 연구 역량이  
국가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도록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 대해 재료비, 위탁개발비 등을 지원해 왔다. 교수와 학생들이 검증한 제품들은 기술지주회사 자회사로 연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산학협력단은 창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궁극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창업 멘토 전문가들은 학생들과 졸업생들을 올바르게 창업하도록 가이드하고 있고, 산학협력단은 창업 자금과 공간 등의 지원으로 학생들을 최대한 보호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의료원기술지주회사 설립**

현재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모든 학문 분야 발전에 공헌하고자 균형 있게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한 개의 주력 분야를 꼽자면 ‘의학 분야다. 고려대학교는 우수한 연구 기반 환경과 자연 환경을 결합한 벤처기업, 연구소의 아이디어와 병원의 임상 테스트를 접목한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다. 클러스터는 산업 집적지, 즉 유사 업종에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들이 한 곳에 모여 있어 정보와 지식 공유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지난 5월, 고대병원은 고려대를 중심으로 한 강북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를 집중 육성할 계획 추진을 발표했다. 또한 연구 중심 병원답게 의료 기술 국산화도 적극적이다. 국산 의료기기 업체와 협력해 척추시술 의료기기를 국산화해 특허를 확보했다. 의료기기 벤처기업과 협력해 임상실험을 지원, 상용화를 돕는다.

“고려대학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연구 중심 병원을 두 개 가지고 있고, 연구 중심 병원의 사업화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의료원 산학협력단과 의료원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원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은 국내 최초이자 유일무이한 기술지주회사입니다.”

**연구와 인재 육성을 통한 국가의 동량이 되는 대학 목표**

김상식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 외 기술지주회사 대표이사이자 창업보육센터장까지 겸직하고 있다. 국내외 여러 기업들과 상생을 도모하는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미래 투자 가치 산업에 대한 연구 개발(R&D), 기술이전, 창업 보육, 인재 육성 등에 힘쓰고 있다. 또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연구 결과들을 다양하게 도출하며 효율적으로 실용화시켜 사업화될 수 있도록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기술지주회사와 창업보육센터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다른 대학과는 차별화된 조직을 운영한다.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고려대학교의 연구 역량이 국가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도록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의 많은 연구 결과를 기업체로 기술이전해서 국가 경제 성장 동력의 밑거름이 되게 하고 고려대학교 인재들이 창업을 활발히 해서 미래의 국가 동량이 되도록 함이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 소식

KU News

고려대학교의 바쁜 일상과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눕니다.  
싱그러운 여름 동안 즐거웠던 교내 뉴스,  
교수·교수·학생들의 풍성한 소식과 함께  
고려대학교만의 끈끈한 멤버십과 정성을 느껴보세요.





## 언론이 본 고려대 김병철 총장의 4년

2011년 2월 고려대학교 18대 총장에 취임한 김병철 총장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14년 김병철 총장의 노력의 결실이 가득했던 2014년 발자취를 언론을 통해 돌아본다.

### 승승장구 고려대학교

고려대는 최근 발표된 2015 US News & World Report 세계 대학 평가인 세계 500대 대학 순위에서 157위로 국내 대학 중 서울대 다음 2위를 차지했다. 또한 2014년 한 해 동안 4년제 대학 취업률 1위, 로스쿨 평가 1위 등 국내외 대학 평가에서 내실을 인정받으며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대학으로 입지를 다졌다. 고려대는 상해교통대가 발표한 '2014 세계 대학 평가' 순위에서 224위를 기록하며 국내 사립대 가운데 최고 순위로, 전년(314위) 대비 90단계나 뛰어올랐다. 2014년 청년드림대학선정 결과에서는 2013년에 이어 2회 연속 '최우수' 대학에 선정됐으며, 2014년 중앙일보 대학 평가 인문사회계열 8개 학과 평가에서 6개 학과가 상위권에 평가되며 국내 대학 종합 평가 4위를 차지했다. 영국의 글로벌 대학 평가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의 '2014-2015 세계 대학평가'에서 166위를 기록, 최근 5년간 QS 세계 대학 평가에서 75단계에 오르며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들은 지난 2011년 김병철 총장 취임 후 우수 교원 유치와 자연계 연구 역량 강화에 집중 투자한 노력의 산물이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는 미래 의학의 발전을 선도할 의료 인재 양성의 기틀이 될 '문속의학관'이 3월에 준공됐으며, 대학 최초

로 한국 고전의 범세계적인 보급과 확산을 목표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산하의 '한국고전번역센터(CKCT : Center for Korean Classics Translation)'가 설립됐다.

올해 호랑이와 독수리의 대결에서 승리의 여신은 호랑이의 손을 잡았다. 잠실벌에서 이틀간 열렸던 2014 고연전에서 고려대는 50년 정기전 역사상 처음으로 전 종목에서 우승의 쾌거를 달성하며 새 역사를 썼다. 그리고 고연전뿐만이 아니라 행정고시 2차에서 초반엔 고려대가 연세대를 박빙으로 앞서가는 듯 보였지만, 올해는 고려대가 69명(19.9%)으로 꺾충 뛰면서 34명에 그친 연세대를 '더블스코어' 이상으로 압도했다. 고려대는 지난해(15.4%, 47명)에 비해 크게 증가하면서 5년 연속 연세대를 따돌리며 2위 자리를 지켰다.

올해는 다채로운 강좌를 위한 새로운 시도가 많았다. 국내 최초 'OCW(Open Course Ware)'를 도입한 고려대는 교양 강좌를 시작으로 하반기 '온라인 공개 강좌 무그(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s)' 서비스를 시작했다. 고려대와 재단법인 플라톤 아카데미가 공동 주최하는 문학 대중강연 프로그램, '인문학 아고라'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주제로 9월 16일부터 11월 18일, 약 3개월간 진행됐다.

### 세계로, 미래로

고려대학교를 찾은 유명인사들의 강연도 이어졌다.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국 국무장관, 칼리 피오리나 전 휴렛패커드(HP) CEO, 스피드스케이팅 이규혁 선수와 쇼트트랙 조해리 선수 등 특별 강연회를 마련하여 고려대 학우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김병철 총장은 그가 제시했던 '지혜로운 글로벌 리더 육성과 신지식 창조'의 비전 아래 지난 6월 30일부터 6주간 고려대 ISC(International Summer Campus)를 진행했다. 전 세계 35개국, 230여 개 대학에서 1,60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했고, 미국, 일본, 호주, 영국, 폴란드 등 세계 각국의 49명의 외국인 석학들이 고려대 교수들과 함께 강연자로 참여해 다채로운 강좌와 한국의 기업과 문화를 경험하는 시간들을 보냈다.

올해는 고려대학교 개교 109주년, 안암캠퍼스 8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도 가졌다. 바로 10월 29일, 30일 양일간 고려대를 주제로 진행된 건축, 문학, 음악 콘서트 '요람에서 광야로(From the cradle to the plains)'이다. 또한 온 국민이 비통에 잠겼던 지난 4월,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가족을 지원하기도 했다. 안암·세종 캠퍼스 및 의료원 교수, 직원들이 한뜻을 모아 모금에 참가해 모은 성금 9,300여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졸업한 선배 교우들이 모교의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해 마음을 전달하는 기부도 이어졌다. 고려대 간호학과 48학번 박희정 할머니께서 근검절약하며 모은 1억 원을 간호대 후배들을 위해 기부했고, 또한 자강산업 민남규 회장(농화학과 66학번)은 'KU-오정 에코리질리언스센터' 건립기금으로 50억 원을 쾌척했다. 설홍수 고려대 의과대학 미주교우회장은 후학 양성을 위해 써달라며 고려대에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의학발전기금으로 전달했으며, 고려대 문과대학 교우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박준구 우신컴텍 대표는 문과대

학 발전기금으로 5억 원을 기부했다. 이수동 STG 회장은 고려대와 미국 조지워싱턴대의 학술 교류를 위해 100만 달러를, 윤태석(㈜세종 대표)도 법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으로 1억 원을 기부했다.

### 4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며

연세대와 와세다대학은 김병철 총장이 우리나라의 학문과 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와 명예 이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연세대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김병철 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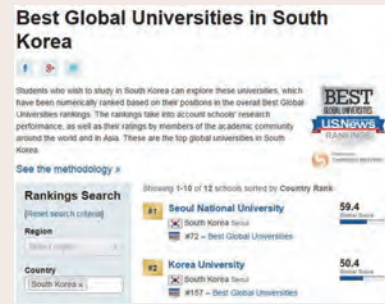
"대학의 기본적인 역할은 교육과 연구, 그리고 사회봉사라는 세 가지 주제로 나뉩니다. 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를 통해 새로운 지적 성과를 창출하며 이를 통해 공동체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해나가는 것이죠. 어떠한 역사적 국면에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대학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나갈 수 있다면 국가와 인류 문명은 그 대학을 반드시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김병철 총장은 1985년 고려대 교수를 시작으로 26년간 고려대에 몸 담으면서 생명과학대학장, 교무부 총장을 거쳐 2011년 2월, 이공계열에서 최초로 고려대학교 18대 총장에 취임했다. 2011년 취임 후 김병철 총장은 대학 경영 혁신과 수요자 중심 행정, 재정 건전화 등에 힘써오며 재임기간 중 가장 많은 기금을 확보했다. 또한 시대 변화와 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 구현을 위해 사이버 국방학과, KU-KIST 융합대학원 등을 신설했다.

이번 2014년은 김병철 총장 임기의 마지막 해다.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오늘의 고려대가 있기까지 김병철 고려대 총장은 지난 4년 재임 기간 동안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해 왔으며, 공선사후(公先私後) 신의일관(信義一貫)의 가치관으로 합리적이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2015 US News & World Report 세계 대학 평가: 국내 2위, 사립대 1위



미국의 권위 있는 대학 평가 전문 매체인 US News & World Report가 전 세계 4개 대륙 49개 국가의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 세계 대학 평가 순위에서 본교가 세계 157위를 차지하였다. 1983년 이래로 미국 국내 대학 순위를 발표해 오며 평가 전문 매체로 잘 알려진 US News & World Report는 국제화 시대에 학생들에게 대학을 선택하는 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평가를 발표하였으며, 대학의 국제적/지역적 평판도, 학술 연구 성과, 대학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 순위를 매겼다고 설명했다.

본교는 서울대(72위)에 이어 국내 대학 중 2위를 기록하며 국내 최고의 사학임을 다시 한 번 증명하였다. 100위권에는 본교에 이어 POSTECH(173위), KAIST(179위)가 포함되었으며, 200위권에는 연세대(223위), 성균관대(228위) 등이 이름을 올렸다. 21개 분야별로 상위 100개 대학 순위를 발표한 전공 분야별 평가에서 본교는 화학, 컴퓨터과학, 경제·경영학, 재료과학 등 4개 분야가 진입하여 국내 대학으로서 서울대 다음으로 많은 분야가 100위권에 포함되었다. 올해 세계 대학 평가 순위에서 본교가 국내 대학 중 서울대에 이어 2위를 차지한 것은 학술 연구 성과 지표 중심의 평가인 상해교통대학 세계 대학 평가 순위에서 이어 두 번째로, 각종 세계 대학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대한민국 로스쿨 랭킹 사립대 1위 차지

고려대 로스쿨이 대기업 법무팀과 로펌이 평가한 전국 로스쿨 랭킹에서 사립대 1위를 차지했다. 한경비즈니스는 최근 주요 로펌과 기업 법무팀 담당자에게 각 로스쿨 출신 인재에 대한 평가를 물었고 그 결과 종합 순위에서 서울대 로스쿨, 사립대 중 고려대 로스쿨, 지방대 중 부산대 로스쿨 출신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로펌과 기업 법무팀에서는 지난 3년 동안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채용하면서 그들의 실력과 가능성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있는 정보를 갖고 있다보니 현실적이고 냉정한 평가가 가능했다. 해외에서는 로스쿨 평가가 매년 발표되고 있지만, 이번 한경비즈니스가 실시한 전국 로스쿨 평가는 국내 첫 사례다.

이번 평가 대상은 전국 25개 로스쿨이며 평가내용은 ▲법 지식 ▲법 응용력 ▲실무 관련 훈련 ▲분야별 전문성 ▲다양성 추구 ▲정의·불편부당·도덕성 교육 ▲지역사회 공헌 ▲진학 추천 등이다. 고려대 로스쿨은 총점 450점을 받아 사립대 15개 중 1위를 차지했다. 종합 1위인 서울대와는 단 20점으로 근소한 차이이다. 항목별로는 '정의·불편부당·도덕성' 항목 1위에 올랐고 '법지식', '법 응용력', '실무 관련 훈련', '분야별 전문성', '진학 추천' 5개 부문 2위, '지역사회 공헌' 부문 5위에 오르며 전통적으로 국내 법조인 양성의 산실이었음을 증명했다.

국제 법무 분야를 특성화로 내건 고려대 로스쿨의 정원은 120명으로 로스쿨 전임교수 58명 중 26명이 법조인 출신으로 44.8%에 달한다. 대법원장 출신의 이용훈 석좌교수를 비롯해 존 리 미국 연방법원 판사(초빙교수) 등 세계적인 석학과 법조 실무의 권위자들로 구성된 교수진은 학업뿐만 아니라 제자에 대한 애정으로 교육과 진로 개척에 헌신하고 있다. 고려대 로스쿨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법학전문대학원 1기 평가에서 8개 항목이 최우승 등급을 받았다.



이종훈 교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 '지식창조대상' 수상

고려대 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 이종훈 교수가 12월 4일(목)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래연구정보포럼 2014'에서 201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 '지식창조대상'을 수상했다. 2009년 국제적으로 학술적 공헌도가 큰 우리나라의 최고 과학자들의 공적을 치하하고자 지식창조대상이 제정됐는데, 이 상은 국내 우수 과학자를 선정하고 시상하는 데 있어 기존의 관행적 방식인 추천 방식을 배제하고, 계량정보분석기법을 통한 수상자 선정 방식을 도입하여 세계 최상위권의 논문을 발표하여 그 인용도가 매우 높은 과학자를 선정한다.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SCIE 색인 DB와 SCOPUS 색인을 사용하여 각 주제별 한국인 과학자 발표 고피인용 논문을 추출한다. 지난 10년간 과학기술 분야 논문 가운데 피인용 횟수 기준 세계 상위 1% 안에 포함된 고피인용 논문을 출판 연도별로 추출한 뒤, 이 가운데 R&D 생산성 향상에 가장 기여도가 높은 선도 과학자를 선정한다. 이종훈 교수는 2004년에서 2013년까지 10년 동안 해당 분야 세계 상위 1% 안에 포함된 고인용 논문 10편을 출판하여 지식창조대상자로 선정됐다.



서지문 명예교수, 한국문학번역상 수상

고려대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서지문 명예교수가 제2회 한국문학번역상을 수상했다. 한국문학번역원은 최근 제2회 한국문학번역상과 제13회 한국문학번역신인상 수상자들을 선정, 발표했다. 서지문 명예교수는 김원일 작가의 <미당 깊은 집>을 영어로 번역하여 수상자로 선정됐다.

서지문 명예교수는 '우리 민족의 고단하던 시절을 그린 이 작품을 번역해 상을 받게 돼 더욱더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녀는 '훌륭한 번역은 번역자가 그 작품을 작가보다도 더 잘 이해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번역을 하기 위해 책을 읽으면 그냥 흥미롭게 책을 읽는 것보다 더 깊이 느끼고 더 많이 깨닫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단 한 편의 작품이라도 문장만을 옮기는 번역이 아닌, 그 번역을 통해 독자가 한국의 역사와 전통과 인습과 한국인의 통념, 의식, 정서, 이 모든 것을 느끼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번역을 하려 한다'고 했다.



이종태 교수, 2014 환경보건학술대상 수상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보건정책관리학부 이종태 교수가 2014년 환경보건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환경보건학술대상을 수상했다. 이종태 교수는 다년간의 한국환경보건학회 전문 활동 및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에 대한 연구, 그리고 국민의 건강을 위한 환경 보건 지표 개발사업을 통해 국내 환경 보건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종태 교수는 국내 환경 보건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환경보건지표 개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현재 개발된 환경보건지표는 정책적 실용화를 위한 준비에 있다. 이 교수는 환경보건지표와 함께 식품보건지표 개발사업도 이끌었다. 이러한 이 교수의 공로는 향후 환경보건학 연구 및 관련 정책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심재철 교수, 제41대 한국언론학회 회장 취임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심재철 교수가 10월 18일(토) 고려대 미디어관과 정경관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2014년도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제41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심재철 교수는 앞으로 '저널리즘과 매스컴 연구의 수준을 높이고,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적 커뮤니케이션 가치와 세계 무대에서 통할 수 있는 미디어 교육의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연구와 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임기 중에 학회 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심재철 교수는 고려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워싱턴 대학에서 석사, 위스콘신 대학에서 매스컴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노스다코다 대학과 미주리 대학 교수를 역임했으며, 고려대 언론대학원장과 고대 신문사 주간을 역임했다.



황성필 교수팀, 나노 수준의 3D 프린팅을 구현하는 히드로겔펜 세계 최초 개발

고려대학교 과학기술대학 신소재화학부 황성필 교수 연구팀이 나노 수준의 3D 프린팅을 구현하는 히드로겔펜을 세계 최초 개발했다.

황성필 교수 연구팀은 개발한 이 펜으로 원자현미경의 정밀함과 극미세전극의 정류상태전류의 특성을 결합하여 나노미터 수준의 좁은 영역에서 전기화학반응을 연구하였다. 펜촉으로는 히드로겔을 피라미드 형태를 가진 틀(template)에 넣고 굳혀 만든 나노 수준의 바늘에 전기화학반응을 위한 전해질을 넣은 피라미드 모양 히드로겔이 사용되었다. 황성필 교수는 본 연구 결과로 '3차원 나노 프린터로 활용하거나 전기화학주사현미경에 활용되어 나노 수준에서 화학반응성의 지도를 작성할 수 있고, 단일 나노 물질의 전기화학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후속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펜을 나노퍼지셔너(nanopositioner)라는 장치로 조심스레 전극표면과 피라미드 끝이 닿도록 하여 국부전기화학(localized electrochemistry)을 형성하였고, Finite Element Method (FEM)이라는 시뮬레이션 기법으로 피라미드에서의 화학반응의 정도의 이론적 해석을 수행하고 실험치로 검증하여 전기화학반응에서 관찰되는 전류의 이론치를 제시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히드로겔 피라미드의 접촉면적을 조절할 수 있었고, 그 후 전기도금을 실시하여 나노수준의 금속을 전기도금 하는 한편, 도금이 일어나는 동안 히드로겔을 적절한 속도로 빼는(pulling) 과정을 통해 종횡비(aspect ratio)가 큰 3차원 나노물질을 제조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번 연구 결과는 나노 기술 분야의 권위 있는 저널인 <나노스케일(Nanoscale)> 온라인판에 게재되었다. 또한 주요한 연구 성과를 뉴스로 소개하는 왕립영국화학회(Royal Society of Chemistry)의 월간 잡지인 <Chemistry World>지의 Research News로 Highlight되어 소개되었다.

박물관-한국사연구소, 유길준 서거 100주년 기념 국제 학술회의 개최



고려대 박물관은 10월 17일(금) 오전 10시30분부터 백주년기념삼성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유길준 서거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열었다. 강재훈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뿐 아니라 동아시아 나아가 인류 전체를 조망하고 한국의 미래를 책임지고자 노력했던 유길준을 소개했다. 그는 현대에 이르러 평화와 상생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유길준의 연구 가치를 다시 돌아보는 것이 큰 의의를 갖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조명철 고려대 박물관장은 추사에서 국내 최초의 대학박물관으로 고려대가 꾸준히 학술회의와 전시를 열었다면서 이번에 또 하나의 훌륭한 학술회의를 열게 되었음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동시에 그는 올해는 갑오개혁 120주년의 뜻깊은 해기에 이번 학술회의에서 구당 유길준의 의의가 재조명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관범 한림대 교수는 '앞으로 폭넓은 자료 재구축과 다양한 연구 방법론들을 통해 유길준에 대한 이해에 도달했으면 좋겠다'며 이번 학술회의가 뜻깊은 자리였음을 밝혔다.



## 2014년도 석탑강의상 수상 교수 초청 만찬 열려



고려대는 11월 26일(수) 오후 6시부터 LG-POSCO 경영관 6층 안영일홀에서 석탑강의상 시상 및 수상 교수 초청 만찬을 열었다.

석탑강의상은 전임전공, 전임교양, 전임영강, 비전임, 교양강좌의 5개 부문으로 나뉘며, 매 학기 말 학부 수상 소감 결과 중 부문별 개설 강좌의 상위 5% 내의 우수한 강의를 한 교원들에게 주어진다. 이번 2014학년도 1학기 석탑강의상은 162명의 교원들이 수상했다.

이날 김병철 총장을 대신해 전명식 대학원장이 대신 시상했다. 시상식에서는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윤성진 교수(전임전공 부문), 문과대학 서어서문학과 이재학 교수(전임교양 부문), 미디어 학부 민영 교수(전임영강 부문),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우준희 교수(비전임 부문), 국제어학원 Peter L. Sinclair 교수(교양강좌 부문)가 대표 수상했다. 전 대학원장은 축사에서 '석탑강의상을 수상하신 교수님들께 진심 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연구와 외부 과제 등 바쁜 와중에도 수업에 열과 성을 다해주고, 학생들을 성심껏 가르쳐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우리는 지식을 꾸준히 습득하고 소화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오늘 함께한 교수님들께서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재학생들에게 알차고 소중한 지식을 효과적으로 알려주셨다. 그리고 나아가 이들이 삶에 도움이 될 지혜를 체득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남다른 기여를 해주셨다. 이 상이 강의 계획뿐만 아니라 학생 스스로의 만족감과 성취도, 수강 후 관련 분야에 대한 지속적 동기 부여 등을 하는 총체적 설문으로 선정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이어 '훌륭한 교수님들이 계시기에 마음이 든든하고 본교의 앞날이 희망적으로 열릴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하며 축사를 마쳤다.

대표로 석탑강의상을 수상한 서어서문학과 이재학 교수는 '저를 포함한 본교 교수님들이 최선을 다해 수업 연구를 하는 만큼 학생들의 기대와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 박성근 교수 연구팀, 연구 결과 <Fermi Today>에 소개돼

고려대 이과대학 물리학과 박성근 교수 연구팀(박성근 교수, 임정구 박사, 윤성우 박사)의 연구가 페르미 연구소 홍보지 <Fermi Today>에 소개됐다.

페르미 가속기연구소의 D0 실험에서 박 교수 연구팀이 연구한 것은 톱 쿼크의 전하량이 얼마냐는 것이었다. 표준 모형에 의하면 톱 쿼크의 전하량은 +2/3 e(전자의 전하량) 값인데, 표준 모형 이외의 이론들에 의하면 4/3 e와 같은 값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실험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이번에 수행한 연구였다. 결론은 표준 모형의 +2/3 e 값을 실험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다. 이 값은 페르미 가속기를 이용한 실험 중에서 가장 정밀한 톱 쿼크 전하 측정값이다.

이 측정에 대한 의미는 자연에 내재해 있는 수의 조화들을 찾는 것이 자연과학의 일이라는 것이다. 마치 황금비율의 존재가 미의 공간적 속성을 밝히듯이, 자연의 실재들에 대한 탐구와 그것들에 부여된 값들의 관계는 자연을 이해하는 큰 그림을 그리는 재료들이다. 현대 물리학은 자연에 존재하는 기본 입자들인 쿼크들이 분수 전하를 띄고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 이번에 박 교수 연구팀이 측정한 톱 쿼크의 전하량이 여기에 해당한다.



## 서성규 교수 연구팀, 스마트폰 이용한 그림자 이미징 기술 기반 세포 및 파티클 사이즈 측정 기술 개발

고려대 세종캠퍼스 과학기술대학 전자및정보공학과 서성규 교수 연구팀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그림자 이미징 기술 기반의 세포 및 파티클 크기 측정 기술의 개발에 성공했다.

서성규 교수와 Mohendra Roy 박사과정(제1저자)의 주도로 진행된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신진연구자지원사업(후속 지원), BK21+(건강안전전진단 ICT 융합기술연구팀), 중점연구소지원사업(광전자신소재연구소)의 지원과 중소기업청이 추진하는 융복합기술개발사업(기술이전 과제)의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전기화학(Electrochemistry) 분야 27종의 SCI 저널 중 영향력지수 기준 1위(JCR 2013) 저널(IF: 6.451)인 국제학술지 <바이오센서스 & 바이오일렉트로닉스(Biosensors & Bioelectronics)> 온라인판 10월 18일자에 게재됐다. (논문명: Low-cost telemedicine device performing cell and particle size measurement based on lens-free shadow imaging technology) 한편, 본 연구의 기반 기술인 그림자 이미징 기술과 관련하여 서성규 교수는 2013년 국내 한 기업과 2.82억 원에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으며, 2014년 국내 특허 등록 및 국제 특허(미국, 중국) 출원을 완료한 상태로 기술의 상용화 및 차세대 응용 기술의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 김정기 교수 연구팀, 한국형 말(馬) 백신 개발로 국내·외 백신 시장 개척

국내 연구팀이 현재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고가의 말(馬) 인플루엔자 백신을 대체할 수 있는 백신 제작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국내 동물용 백신 제조 업체에 기술이전 했다.

이번 기술이전으로 향후 2년 내에 해외 제품과 효능은 대등하면서 상당한 가격 경쟁력을 가진 국산 말 인플루엔자 백신이 생산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현재 국내 시장(말 3만 마리, 연 10억 원 내외)의 해외 백신 수입을 대체하는 것은 물론, 인근의 몽골(말 200만 마리, 연 100억 원 이상), 중국 및 일본 등지의 해외 시장 등에도 진출이 기대된다. 이번 성과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글로벌프론티어사업의 바이오노헬스가드연구단의 지원으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송대섭 박사팀 및 정대균 박사팀과 고려대 김정기 교수팀이 수행했다. 말 인플루엔자는 전염성이 높은 말 호흡기 질병으로써 유럽, 미주, 북아프리카 및 아시아 등 전 세계에서 발병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과 일본, 몽골 등 주변국의 말 인플루엔자 발병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말 레저(leisure) 산업이 육성되면서 말 관련 질병 관리 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백신은 현재 전량 수입제품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변이된 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인해 한국형 백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 학문소통연구회 창립 7주년 심포지엄 겸 유니버시티플러스 강연 열려

고려대는 11월 28일(금) 오후 1시 30분 백주년기념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성찰과 희망, 새로운 대한민국을 묻다'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 심포지엄은 고려대 학문소통연구회 창립 7주년 기념 행사를 겸하여 고려대 교무처가 주관하는 University Program의 일환으로 열렸다.

김한겸 학문소통연구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학문소통연구회는 분과 학문 간 대화와 토론으로 통섭적, 창조적 관점을 만들고자 한다'며, 이 심포지엄에서 세월호 사건을 다루며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성찰과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은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진행됐다. 1부는 '세월호 사건을 통해 본 한국 사회의 문제와 대안'을, 2부는 'Start Again, ROK: Building a Proactive Paradigm for Social Safety Networks by the People'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안철수 국회의원, 이민수 고려대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이용식 관훈클럽 총무, 안문석 명예교수, 문형구 교수(경영대학), 김윤태 교수(인문대학), 허우성 교수(경희대) 등이 패널 토론에 참여했다.



## '북-일 관계 심층 분석과 남북한 및 동북아 정세 전망' 세미나 열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는 11월 13일(목) 오후 1시 백주년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북-일 관계 심층 분석과 남북한 및 동북아 정세 전망'이라는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세미나는 고려대 아세아 연구소 내 북한연구센터의 주관으로 아시아 정세 속에서 북한을 읽어내고 앞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전망하기 위해 열렸다.

이종화 연구소장은 '북한연구센터가 아세안 연구소의 학제 간 연구의 전통을 살리면서 북한 연구의 새로운 비전을 열고자 설립된 곳'이라고 설명하면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북한 전문가를 양성해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도성재 고려대 교무부총장은 '이러한 세미나 등을 통한 학문적 성과들이 정책적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평화를 위해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길 기원한다'며 축사를 전했다.

박진 한국외대 석좌교수는 기조강연에서 현재 동아시아에서 일어나는 관계 변화 중 북일 관계에 주목하면서 이 관계가 진전되었을 때 한국이 취해야 할 입장에 대해서 다각도로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한국이 신뢰프로세스를 기반으로 남북 대화의 주도권을 잃지 않으며 미국, 일본과의 관계를 긴밀히 유지해야 북일 교섭으로 인한 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민족문화연구원, 동경대학 문학부 소장문고와 연구 협정 체결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은 일본의 대표적인 한국 고전적 소장 기관인 동경대학 문학부 소장문고(책임 로쿠탄다 유타카)와 11월 10일(월) 일본 동경대학에서 연구 협정을 체결했다.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해외한국학자료센터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해외 소장 한국 고전적 자료의 상세 서지 정보를 정리하고 원문 이미지를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외한국학자료센터는 이미 국내에서 처음으로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일본 동양문고가 소장한 한국 고전적 자료의 디지털을 완료하여 국내외 연구자 및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다.(http://kostma.korea.ac.kr/riks) 또한 지난 1월 오사카부립 나카노시마도서관과 협약체결을 하여 현재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해외한국학자료센터와 동경대학 소장문고의 협정은 해외한국학자료센터가 그동안 이론 성과를 바탕으로 체결하게 된 네 번째 결실이다. 해외한국학자료센터는 동경대학 소장문고 이외에도 동경대학 부속도서관과 내진공사가 끝나는 2019년 이후에 자료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 캠퍼스의 작은 지구촌, 2014 ISF 열려



고려대학교는 11월 6일(목) 고려대 안암캠퍼스 민주광장(학생회관 앞)에서 '2014 외국인 학생 축제(ISF, International Students Festival)'를 개최했다.

외국인 학생들이 자국의 문화, 음식, 유행, 여행 등을 알리고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이해와 소통을 위해 마련된 이 자리에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일본, 호주, 중국, 프랑스, 덴마크, 독일, 스페인, 스웨덴, 네덜란드, 모로코, 핀란드, 페루, 뉴질랜드, 영국, 브루나이, 터키, 일본 등 32개 국가 및 지역의 부스가 마련되어 교류의 장이 열렸다. 이 행사에 참여한 외국인 학생들은 민속 의상을 입고 전통요리를 만들고 춤을 선보이는 등 자국을 알리기 위한 여러 행사를 가졌다. 자국을 알릴 때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들은 이 행사를 통해 하나로 어우러지는 화합된 작은 세계를 선보였다.

**국내 대학도서관 최초 캠퍼스 전체 아우르는 '스마트대출반납시스템' 갖춰**



고려대가 국내 대학 최초로 캠퍼스 전체를 포괄하는 도서관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존 바코드 시스템으로는 도서를 대출하거나 반납할 때 한 권씩 처리해 단순 업무 처리의 효율성이 낮았으나 비접촉식 리더 방식인 RFID를 이용하면 여러 권의 책을 한 번에 처리하여 효율적인 업무 환경 구축이 가능하다. 또한 '장서 점검기'를 통해 오배열, 소재 불명 도서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여 RFID 시스템을 통해 도서관 내 모든 장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고려대는 안암캠퍼스 내의 중앙도서관, 과학도서관, 해송법학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163만 권의 장서들에 RFID 태그 부착을 완료했으며 학생들이 도서관 개방 시간을 제외하고도 도서관이 아닌 다른 장소에 비치된 '스마트대출반납기'를 통해 24시간 장서의 대출과 반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RFID 시스템 구축이 주목받는 것은 도서 대출 및 반납 업무의 효율성을 상승하는 관리자 중심의 프로그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사용자 중심의 대출 서비스가 대폭 변화된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도서를 신청하고 학생의 대출 신청이 확인되면 스마트대출반납기로 도서가 이동한다. 그 후 학생에게는 대출 알림이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전송되고, 해당 학생은 기계에서 학생증을 대면 책이 나오게 되는 이른바 '도서 자판기'가 실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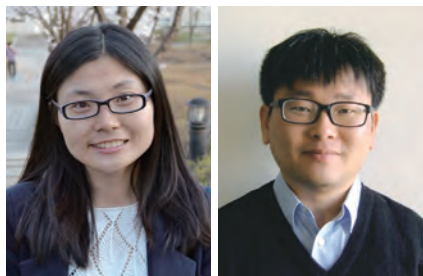


**한국 KU-싱가포르 NTU-이스라엘 HUI 공동 국제혁신연구원 설립**

창조 경제 실현을 위해 한국, 싱가포르, 이스라엘 대학들이 공동 연구원을 설립한다. 고려대는 최근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NTU), 이스라엘 히브루대학(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Israel: HUI)과 함께 각 대학 강점 분야를 활용한 혁신적 공동 융합 연구 및 글로벌 교육을 주관할 국제혁신연구원(Institute for International Innovation: I3)을 설립하는 데 뜻을 함께 했다. 고려대는 지난 해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과 함께 노벨상 수상자들을 초청하여 자라나는 과학 꿈나무들을 대상으로 2013 Molecular Frontiers Symposium을 유치하여 성공적인 개최를 마친 바 있다. 그 후 고려대에서 공동 연구원 설립에 대한 구체화를 협의했고 최근 3개 대학이 국제혁신연구원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구체적인 협력 분야를 도출하기로 합의했다. 이같이 세 개 대학이 뜻을 함께 한 데에는 최근 급변하는 세계 경제에 대처하고 지속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대학 연구의 혁신이 중요해진 것에 따른 것이다. 또한 정치 경제 지리적 상황이 비슷한 한국, 싱가포르, 이스라엘의 최고 대학 간 협력의 중요성이 대두된 것도 그 배경으로 꼽힌다.

**고려대-아데나워재단, 한-독 국제학술회의 개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신영호)은 독일 아데나워재단과 함께 10월 25일(토)부터 28일(화)까지 고려대에서 한-독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첫 날은 <21세기 한국과 독일의 입헌 민주주의: 헌법은 무엇이었고, 무엇이 될 것인가?>라는 주제로 김선택 고려대 교수, Bonn대학교 Jorg Menzel 박사가 발표했다. 둘째 날은 <과거 청산이나 역사 부정이나>라는 주제로 독일 연방법무부 소속 공무원인 Philipp Graebke와 Florian Hansen, 이한주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박사, 최규환 고려대 법학연구원 박사가 발표했다. 마지막 날은 <정당 민주주의와 정당 해산>이란 주제로 독일의 정당법 전문가인 뉘셀도르프 대학교 Heike Merten박사, 베를린 대학교 Seyda Emek 박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윤정인 박사, 고려대 출강 중인 이재희 박사가 발표했다. 아데나워재단은 전 세계 70여 개 사무소를 가지고 있으며 독일정부가 지원하는 공익재단으로 장학금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과학원, 제1회 김준엽 펠로우 선임**

재단법인 사회과학원(이사장 지청 고려대 명예교수)은 2014년 10월부터 '김준엽 펠로우십'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중국학 발전과 중국에서의 한국학 발전, 그리고 한반도 통일 문제에 깊은 관심과 지대한 공헌을 남긴 전 고려대 총장故 김준엽 선생(1920~2011)의 유지를 기리기 위해 (재)사회과학원에서는 2014년 10월부터 미래의 한국학과 중국학 발전을 선도할 젊은 연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김준엽 펠로우십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따라서 (재)사회과학원은 김준엽 펠로우십 운영위원회(위원장 윤사순 고려대 명예교수)를 구성해, 한국과 관련된 분야를 연구하기 위해 한국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유학 온 중국인 유학생들이나, 중국과 관련된 분야를 연구하기 위해 중국 또는 대만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유학하는 한국인 유학생 가운데 박사학위 과정에 적을 두고 있는 연구생을 대상으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응모자를 중심으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제1회 김준엽 펠로우로 선정했다. 등천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생(전공: 현대문학), 이동욱 북경대학 역사학계 박사과정생(전공: 중국근현대사)이 선정되었다.

**해상법연구센터, 2014 ICASL SEOUL 국제학술회 개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와 한국해운물류학회(회장 한종길)는 10월 31일(금) 오후 9시부터 고려대 CJ법학관에서 '2014 ICASL(International Conference of Asian Shipping and Logistics) 국제학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국제학술회는 '해상 안전 관리(Maritime Safety Management)'를 주제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호주, 홍콩, 베트남 등 10여 개국의 연구자들이 참가하여 세계 각 지역의 관점에서 여객 해상 안전과 해운, 항만, 항공, 물류 정책과 이슈에 대한 주제를 다각도로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제7회 ICASL 국제학술회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국내 여러 대학과 연구기관과 해외 지역 전문가 및 학자들이 모여 함께 우리나라의 해상 안전, 해양 정책, 해운 물류의 개선과 향후 미래를 논의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관련 주제에 대한 뜨거운 논의의 장이 되었다.



**일본연구센터, 일본학총서 제28권 출간**

고려대 일본연구센터(소장 유재진 교수)는 일본학총서 제28권으로 『동아시아의 일본어 잡지 유통과 식민지 문학(도서출판 역락)』을 간행했다. 이 책은 한국, 중국, 일본, 타이완, 미국 지역 등에서 주로 일본문학이나 식민지문학을 전공하는 연구자 19명이 일제 강점기 동아시아 지역에 유통되었던 일본어 잡지를 통해 식민지 문학의 문제를 탐구한 글을 고려대 일어일문학과 정병호 교수 편지로 한데 엮은 것이다. 이 책은 고려대 일본연구센터가 제안하여 중국 베이징사범대학, 타이완 푸린대학, 일본 나고야대학, 규슈대학 등이 함께 결성한 '동아시아와 동시대 일본어문학 포럼'의 제1회 국제학술회의 주요 성과물이기도 하다. 이 책은 '문학으로 보는 근대 동아시아의 일본어 잡지 유통', '월경하는 동아시아 문예의 제 양상', '동아시아 식민지 일본어문학의 쟁점', '일본어 잡지와 동아시아 식민지 문학'이라는 4부로 구성되어 각각의 부에 4~5편의 논문을 실어 19장 체제로 구성했다.



**한국사회과학연구단, 2014 KREI-SSK 국제심포지엄 개최**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한국사회과학(SSK)연구단(총괄 한두봉 교수)은 고려대 BT, ET, FT 기반 BK21+팀 및 한국농촌경제연구원(최세균 원장)과 공동으로 11월 7일(금), 8일(토) 이틀간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동관 오정강당에서 '식량, 에너지, 금융 분야의 글로벌시스템 리스크'라는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2008년 이후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식량, 에너지, 금융의 글로벌 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주제로 열렸다. 9개국 19명이 연사로 참여해 전 세계적 대처 방안과 비전을 제시한다. 또한 아시아, 미주, 유럽 및 선진국, 중국과 개도국의 식량, 에너지 안보와 금융안보 확보 방향과 정부의 역할, 다각적인 위험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한두봉 교수는 '식량, 에너지 및 금융에 대한 적절한 위험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성장에 큰 제약 요소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국제 콘퍼런스는 전 세계 대학, 연구소,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글로벌 시스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국제 공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한-중시장·규제법센터, 국제 세미나 개최**

고려대 한-중시장·규제법센터(대표위원 김연태·Shi, Ji Chun)는 11월 8일(토) 중국 상해교통대 신법학관에서 한국과 중국의 주요 정부 관계자, 법학자 및 변호사들과 함께 '주요 반독점 사례에 대한 법 경제학적 분석'을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중국 상해교통대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한국과 중국에서 공동으로 제기된 경쟁법 사건과 이슈들을 중심으로 다뤘다. 특히 실제 사건을 다루고 입안에 참여한 한국과 중국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만나 양국의 사건 처리 내용과 법경제학적 시사점 등을 비교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MRLC(한-중시장·규제법센터)는 고려대 ICR센터(혁신·경쟁·규제법 센터)와 중국 인민대학 경제법센터가 공동으로 설립한 한-중 최초의 법학연구소로서, 지난 2013년에 설립되었다. MRLC는 앞으로도 한국과 중국의 경쟁법 및 지적재산권을 공동 연구하고 정책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학술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혁신·경쟁·규제법센터, 기획 세미나 개최**

고려대 혁신·경쟁·규제법센터(CR센터, 소장 김연태)는 11월 21일(금) 오후 2시 고려대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한국과 중국, 미국의 주요 정부 관계자, 법학자 및 변호사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NPE에 대한 한국·중국·미국의 관점 비교 분석'을 주제로 기획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이슈화된 NPE(Non-Practicing Entities)에 대한 한국과 중국, 미국의 관점을 비교·분석하며 특히, 각각의 입장을 심층 분석한 후 국내외의 관련 정부부처에서 해당 실무를 관장했던 관계자를 초청하여 관련 주제에 대하여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Competition Concerns about NPEs Korean Perspectives'라는 주제로 홍대식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발표하고, 이어 Tan Yuan 교수(중국 청년정치대학교)가 'Monopoly issues related to NPE in China'에 관해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Yee Wah Chin 변호사(미국 Ingram Yuzek Gainen Carroll & Bertolotti 법률사무소)가 'NPEs: Trolls and/or Champs?'을 주제로 미국의 규제 현황과 전망에 관해 발표했다. 주제 발표에 이은 토론 세션에서는 노상섭 전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을 비롯해 국내 주요 로펌의 현직 변호사들이 패널로 참석하여 토론을 진행했다.

**인문학 아고라 '어떻게 살 것인가' 대장정 막내러**



고려대는 11월 18일(화) 오후 7시 고려대 인촌기념관 강당에서 (재)플라톤아카데미와 공동으로 주최한 인문학 아고라 '어떻게 살 것인가' 열 번째 강연을 열었다. 이날 강연은 지난 9월 16일(화)부터 진행된 인문학 아고라 10주 강연의 마지막 강연이기도 했다. 마지막 강연자는 서울대 사회교육과 명예교수이자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인 손봉호 명예교수로, 그는 '아프게 하는 사회, 이 시대가 요구하는 윤리'를 주제로 강연했다. 앞서 아홉 번째 강연은 11월 11일(화) 고려대 문과대학 불어불문학과 황현산 명예교수가 '시와 타자의 목소리'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여덟 번째 강연은 11월 4일(화)에 열렸다. 먼저 플라톤 아카데미 설립 4주년을 기념하여 'The Classic Plays the Life'라는 주제로 웰리스트 양성원 연세대 교수의 연주와 강연이 진행됐고, 이어서 '톨스토이, 성장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석영중 고려대 교수가 진행했다. 일곱 번째 강연은 10월 28일(화) 이강호 그린포스코리아그룹 회장이 '글로벌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여섯 번째 강연은 10월 21일(화)에 열렸는데, 용타 스님은 '행복한 삶을 위한 5가지 원리'를 주제로, 박승찬 가톨릭대 교수는 '고통을 넘어서는 희망'을 주제로 강연했다. 다섯 번째는 10월 14일(화) '행복에 관하여 : 마음 vs 몸'을 주제로 구급의 명상 전문가 차드 명 탐과 최인철 서울대 교수의 강연을 열었다. 네 번째 강연은 10월 7일(화) 조성택 고려대 교수가 '경계의 차이를 넘어 함께하는 지혜'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대학 정규 강좌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Discover KU, 한주간 열려**



고려대는 학교 강의실에서 30개의 정규강좌와 특강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교육 프로그램의 하나인 'Discover KU' 행사를 10월 27일(월)부터 31일(금)까지 진행했다. 열린 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대학교 내 강의를 초·중·고교생 및 일반인에게 공개하며 강의실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고려대는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로 이 행사를 진행했다. 기존 대학을 넘는 비전을 가진 인재 양성을 위한 고려대 University Plus 프로젝트의 일환이며 이 프로젝트는 지적체를 겸비한 인격 함양을 목표로 기존 대학교육의 한계를 넘는 균형 있는 실력과 비전을 가진 인재 양성을 위해 2012년 기획되어 학기마다 시행되고 있다. 행사는 고려대 학생이 듣고 있는 강의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개강의실', 고려대 교수들이 테마를 정해 직접 강연하는 '특별강연', 고려대 출신 유명 저자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저자와의 대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2007년 고려대가 처음으로 온라인상에서 대학 강의를 공개하기 시작한 OCW(Open Course Ware), 2013년 iTunes U에서의 강의 공개(http://open.korea.ac.kr)와 더불어 오프라인에서도 강의를 느껴볼 수 있는 기회를 처음 마련한 것이다.

**2015학년도 수시 모집  
논술시험 치러져**



고려대는 11월 22일(토), 23일(일) 이틀에 걸쳐 2015학년도 수시 모집 일반 전형 논술고사를 실시했다. 첫째 날에는 자연계, 둘째 날에는 인문계 논술시험이 각각 오전, 오후로 나뉘어 실시됐다. 고려대는 인촌기념관 등에 학부도 대기실을 마련하여 차가운 날씨로부터 몸을 녹일 수 있도록 차와 다과를 비치하고 명상용 음악을 틀어 학부모들이 긴장을 풀 수 있도록 공간을 준비했다.

**아세아문제연구소 중국연구센터, 국제학술회의 개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소장 이종화) 중국연구센터는 11월 28일(금) 오후 1시부터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중국의 동아시아 질서 구상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학술회의를 통일부, 한국연구재단 후원으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두 세션으로 구성됐다. 첫 세션은 '동아시아 권력 질서의 재편과 중국의 구상'으로 시진핑 정부의 등장 이후 중국의 대외 전략의 변화 및 신아시아 정책, 동아시아 질서 구상, 그리고 한반도 정책의 조정 내용을 다뤘다. 두 번째 세션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으로 통일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의 가능한 정책적 협력 및 갈등 요인을 찾는 것에 초점을 뒀다.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 최근 점점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시진핑의 신아시아 정책의 내용, '한중동맹론', 중국의 '북한포기론', 북한 급변 사태 시 중국의 독자적인 북한 진입 여부, 북중경협과 북한 경제의 대중국 종속 정도 등 다양한 쟁점들이 다루어졌다.



어 사용의 장을 넓히는 것을 도려해 왔다. 특히 이 행사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현대의 대표적 미디어인 동영상상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교류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날 대상의 영광은 고려대 플래그십 학생들이 한국에서 인턴 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고 느낀 이야기를 표현한 <우리들의 좌충우돌 한국 생활>에게 돌아갔다. 하와이대학교 KFOP팀은 대상과 함께 연출상 2관왕을 수상했다. 또한 독일인 카림 씨가 한국인 친구 커피를 보며 느낀 문화 차이를 표현한 <독한 남자들>은 연기상, 아이디더상(청중 평가단 심사), 최우수상의 3관왕을 차지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핀란드 고려대 한국어센터 학생 복단(32) 씨는 '이번 행사는 외국인들과 한국인들이 함께 문화 교류를 하는 뜻 깊은 자리인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작인 <원자력발전소의 진실>은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의 심각성을 몸으로 체험, 그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비영리 법인 아시아 태평양 자료센터(PARC)가 주축이 되어 2011년 8월에 긴급하게 제작한 것이다. 13일 상영된 <청각장애자의 3.11>은 3.11 일본 대지진 당시 피난 경보를 듣지 못해 쓰나미에 휩쓸린 청각장애인들의 현실에 착안한다. 20일 상영작인 <후쿠시마를 잊지 않으리>는 원전 사고 후 키우던 소를 처분해야 했던 농부가 자살한 사건, 필리핀인 아내가 있는 가정의 현실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영화제 마지막날인 28일에는 대지진 이후 그 균열을 짊어진 채 동요하면서도 다시 일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초점을 맞춘 <Since Then>이 상영됐다. 이어 시노자키 마코토 감독의 특별 강연회가 진행됐다. 마코토 감독은 릿고대학 현대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최근작으로 <Since Then> 이후의 3.11 동일본대지진을 둘러싼 이야기를 그려낸 <Sharing>이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 영화의 창에 공식 초청되어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한국어센터,  
제3회 세계 한국어 영상 한마당 개최**

고려대 국제어학원 한국어센터는 11월 5일(수) 오후 3시 인촌기념관 대강당에서 '제3회 세계 한국어 영상 한마당'을 열었다. 한국어센터는 13년 전 '전국 외국인 한국어 연극 한마당'을 시작으로, 3년 전부터는 '세계 한국어 영상 한마당'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동시에 한국어 사용의 장을 넓히는 것을 도려해 왔다. 특히 이 행사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현대의 대표적 미디어인 동영상상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교류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날 대상의 영광은 고려대 플래그십 학생들이 한국에서 인턴 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고 느낀 이야기를 표현한 <우리들의 좌충우돌 한국 생활>에게 돌아갔다. 하와이대학교 KFOP팀은 대상과 함께 연출상 2관왕을 수상했다. 또한 독일인 카림 씨가 한국인 친구 커피를 보며 느낀 문화 차이를 표현한 <독한 남자들>은 연기상, 아이디더상(청중 평가단 심사), 최우수상의 3관왕을 차지하기도 했다.

**'재해를 넘어 더불어 살다'  
제1회 일연영화제 개최**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소장 유재진)는 11월 6일(목)부터 28일까지 매주 목요일 4차례에 걸쳐 일연영화제를 개최했다. 이번 영화제는 일본 사회가 겪은 3.11 동일본 대지진, 후쿠시마 원전 사태 등 각종 재해를 다양한 영화를 통해 접근했다. 또 이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서 일본의 재해 현실을 관찰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를 성찰하기 위해 기획됐다. 첫 번째 상영작인 <원자력발전소의 진실>은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의 심각성을 몸으로 체험, 그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비영리 법인 아시아 태평양 자료센터(PARC)가 주축이 되어 2011년 8월에 긴급하게 제작한 것이다. 13일 상영된 <청각장애자의 3.11>은 3.11 일본 대지진 당시 피난 경보를 듣지 못해 쓰나미에 휩쓸린 청각장애인들의 현실에 착안한다. 20일 상영작인 <후쿠시마를 잊지 않으리>는 원전 사고 후 키우던 소를 처분해야 했던 농부가 자살한 사건, 필리핀인 아내가 있는 가정의 현실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영화제 마지막날인 28일에는 대지진 이후 그 균열을 짊어진 채 동요하면서도 다시 일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초점을 맞춘 <Since Then>이 상영됐다. 이어 시노자키 마코토 감독의 특별 강연회가 진행됐다. 마코토 감독은 릿고대학 현대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최근작으로 <Since Then> 이후의 3.11 동일본대지진을 둘러싼 이야기를 그려낸 <Sharing>이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 영화의 창에 공식 초청되어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제2회 ICR센터 전국 대학(원)생  
혁신·경쟁·규제법 논문경연대회 수상작 발표**

ICR센터는 지난 11월 3일 제2회 ICR센터 전국 대학(원)생 혁신·경쟁·규제법 논문경연대회(이하 'ICR센터 논문경연대회') 수상 논문 발표회를 개최했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 ICR센터 논문경연대회는 법학이 우리 경제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대학(원)생들의 창의적·다원적 연구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기획됐다. 이번 논문경연대회에는 총 6편의 수상작이 선정되었고, ICR센터 신진학자 발표회 후 수상 논문 발표회 및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 논문경연대회의 최우수상은 인학법(서울대 경제학과) 학생이 수상하였다. 수상논문들은 내년 봄 ICR센터가 발간하는 <규제와 법정책>에 게재될 예정이다. CR센터는 이번 논문경연대회가 후원 로펌과 많은 학생들의 높은 관심속에서 성공리에 개최되어 앞으로 전국적으로 우수한 법학 인재들을 발굴하는 기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서울시 동북4구 산학협력단장 포럼 열려**

고려대 산학협력단은 12월 2일(화) 오후 3시부터 서울시 동북 4구 산학협력단장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고려대, 국민대, 광운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삼육대, 서경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한성대 등 서울 동북 4구 산학협력단장 및 실무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2015년도 정부 주요 R&D 정책 방향 설명 및 관련 현안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주요 안건으로는 교육 거버넌스 운영과 연구 장비 공동 활용에 대한 내용들로 채워졌다.



**퀄컴, 고려대 이공계 인재들에게 10만불 지원**

첨단 디지털 무선통신 기술, 제품 및 서비스의 세계적 선도기업인 퀄컴 Incorporated이 고려대 석·박사과정 학생들과 지도 교수들을 대상으로 연간 총 10만 불의 연구 장학금을 지원하는 '퀄컴 이노베이션 어워드 (Qualcomm Innovation Award)'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내외 창의적인 인재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퀄컴 이노베이션 어워드'는 석·박사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간 총 10만 불의 연구 장학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수혜자들은 어떠한 조건이나 의무사항 없이 연구 및 학업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수상자들은 연구 장학금을 기반으로 향후 1년간 연구를 수행하게 되며, 연구 기간 중 두 번에 걸쳐 퀄컴 엔지니어와 관련 산업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워크숍에서 본인의 연구 성과를 발표, 공유하고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된다. 고려대는 폴 제이콥스 퀄컴 이사회 회장과 11월 7일(금) 오전 9시 30분 고려대 공학관에서 퀄컴 이노베이션 어워드 수상패 전달식을 가졌다.



**폴 제이콥스 퀄컴 이사회 회장,  
'무선 기술의 혁신' 특별 강연**

폴 제이콥스 퀄컴 이사회 회장은 11월 7일(금) 오전 10시부터 고려대 미래융합기술관 강당에서 고려대 공과대학 학생들을 만나 '무선 기술의 혁신'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이 자리에서 제이콥스 회장은 '디지털 식스센스 구현은 모든 정보기술(IT) 기업이 나아가야 할 미래 비전'이라며 '연결성(Connectivity), 맥락(Context), 제어(Control) 기술이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스마트폰, 스마트TV, 스마트카 등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기기가 2020년까지 25억 대에 이를 것'이라며 '관련 역할을 하는 모바일 기기가 어떻게 연결 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과대학 학생들에게 '디지털 식스센스' 시대를 본격화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미래에는 다양한 기술이 융합돼 인간에게 새로운 기회를 많이 제공할 것'이라며 그에 걸맞은 인재로 성장할 것을 학생들에게 당부했다.

**김효주 교수,  
저소득층 소아암 환자  
치료비 5천만 원 기부**



고려대는 11월 25일(화) 오후 4시 고려대 본관 총장실에서 프로골퍼 김효주 선수와 고려대의료원 자선기금 기부식을 가졌다. 이날 기부식에서 김효주 선수는 저소득층 소아암 환자 진료비에 써달라며 5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기부자 김효주 선수와 부친 김상호 씨, 모친 최성희 씨를 비롯한 고려대 김병철 총장, 도성제 교무부총장, 김우경 의무부총장, 유병현 기획예산처장, 이원규 학생처장 겸 체육위원장, 김상용 대외협력처장, 김용연 의무기획처장 등이 참석했다.

올해 고려대 체육교육과 14학번으로 입학한 김효주 선수는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 사상 처음으로 시즌 상금 10억 원을 넘기며 2014년 상금왕, 대상, 다승왕, 최저타수상을 휩쓸며 새로운 역사를 기록했다. 올해 LPGA '에비앙 챔피언십' 우승으로 2015 시즌부터는 LPGA 투어로 진출하여 세계 무대에서 맹활약을 보여줄 예정이다. 기부식에서 김효주 선수는 '병마와 싸우는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좋은 성적으로 많은 아이들에게 더 큰 나눔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고려대 총장은 '올해 좋은 성적으로 고려대의 이름을 빛내준 김효주 선수가 자랑스럽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아들을 위해 기부금을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우경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김효주 선수의 소중한 나눔의 뜻으로, 앞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하루 빨리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치료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국 골프의 셋별에서 세계 속으로 성장해 나가는 김 선수의 모습을 보며, 환아들도 큰 희망을 얻을 것'이라고 답했다.

## 여자축구부 창단식 열려



고려대는 11월 28일(금) 오후 3시 고려대 인촌기념관 대강당에서 고려대학교 여자축구부 창단식을 가졌다.

고려대는 지난해 12월 대한축구협회 및 한국여자축구연맹과 여자축구부 창단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고, 올해 2015학년도 수시 모집(체육 인제 전형)에서 여자축구 체육특기생 17명을 선발했다. 선수들은 국제스포츠학부에 소속하게 되며 지난 10일부터 광양에서 전지 훈련을 마치고 돌아왔다.

여자축구부의 첫 번째 지휘봉은 유상수 감독이 잡게 됐다. 유 감독은 부천SK프로축구단을 시작으로 안양LG치타스, 전남드래곤즈 등에서 선수 생활을 했으며 은퇴 후 제주, 울산, 수원 등에서 후진 양성 활동을 해 왔다.

창단식에서 김병철 총장은 “이제는 이렇듯 뛰어난 자질을 지닌 한국 여성들이 개인 종목을 넘어 단체 종목에서도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인프라를 형성하고 성장시키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막 첫 발걸음을 뗀 본교 여자 축구부가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 속에 체력과 기술을 공고히 다져나가고 우리나라 여자축구의 큰 기동으로 자라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함께 한 정봉규 대한축구협회장은 “고려대는 그동안 대한민국 축구에서 큰 역할을 해 온 많은 이들을 배출해왔다. 이번 여자 축구단 발족으로 앞으로 여자 축구계에서 우수한 선수, 지도자, 심판, 행정가 등이 배출되기를 기대한다. 오늘 창단하는 고려대 여자축구부는 한국 여자 축구발전의 큰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규상 한국여자축구연맹 회장은 “한국 여자 축구의 기반은 아직 많이 취약하다. 고려대 여자축구부 창단을 계기로 우리나라 여자 축구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며 한국 여자 축구 성장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앞으로도 많은 여자 축구부가 계속해서 생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장을 맡은 김예진 선수가 다른 선수들을 대표하여 앞으로의 모든 활동을 열심히 할 것을 선서했다.



## 백영훈 한국산업개발연구원,

### 유니버시티 플러스 <사람·희망> 강연

고려대는 11월 11일(화) 오후 5시 법대신관 401호에서 유니버시티 플러스 프로그램 <21세기 한민족시대, 젊은 지성인의 역사적 비전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백영훈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의 강연을 개최했다. 강연에는 약 5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백영훈 원장은 고려대 상과 50학번으로 입학하자마자 한국전쟁으로 많은 동기들을 잃었다. 백 원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비 장학생으로 당시 분단 상태였던 서독의 FAU(프리드리히-알렉산더)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59년 학위 취득 후 바로 국내로 돌아와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직을 맡았다. 이듬해인 1960년 박정희 정부가 외국에서 차관을 끌어오기 위해 노력하던 중 독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백 원장을 발탁, 독일에 다시 파견하기도 했다.

강연 말미에 백 원장은 선배로서 개척 정신을 가지고 끊임없는 혁신을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코엑스 종합무역센터의 계단형 디자인은 백 원장과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역사 그 자체다. 백 원장은 이러한 건물 외관이 우리나라 수출 상승 그래프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했다.



## 글로벌 투자분석 대회

### 국내 결선 고려대팀 우승

CFA한국협회는 11월 29일(토) 오후 2시 금융투자교육원 리더스홀에서 '2014~2015 CFA 글로벌 투자분석대회' 한국 결선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CFA 글로벌 투자분석대회'는 CFA협회가 미래 애널리스트 지망생들에게 주식 분석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하는 대회다. 지난 2013~2014년 대회 기준 58개국, 825개 대학의 3,7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우승팀은 고려대 투자분석동아리 RISK팀(경영학 4학년 이동진, 박정우, 장지혜, 경제학 4학년 신유진, 국제학부 3학년 장동빈)이었다. 이 팀은 아시아 대회 출전권과 우승 상금 500만 원을 차지했다. 서강대 SRS팀이 준우승했고, 부상으로 팀 전원이 아시아 대회를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이번 결선 대회는 1차 예선 리서치 보고서 심사를 통과한 최종 5개 팀(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동대, 연세대)이 영어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손 코크란 CLSA코리아 증권 대표 겸 리서치 센터장, 제드 배론 아콜레이드 이사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으며 1차 보고서 점수와 2차 프리젠테이션 점수를 합산해 우승팀을 선발했다.



## 사회봉사단 6기 수료식, 7기 발대식 열려

고려대 사회봉사단은 11월 29일(토) 오후 1시 418기념관 대강당에서 6기 수료식 및 7기 발대식을 열었다. 이번 사회봉사단 7기 학생봉사단원으로서 총 90명의 학생들이 선발되었으며, 83명의 6기 봉사단원이 1년의 과정을 수료했다. 김상용 사회봉사단 부단장은 식사에서 '고려대는 항상 지성의 혜택을 널리 알리는 것에 선두에 있어 왔다'면서 '수료하는 6기 학생들이 향후 언제 어디서든 남을 돕고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언제나 같은 마음으로 응원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6기 단원 중 강기혁(물리치료학과 08) 학생은 '사회봉사단으로서 보낸 1년이 주위를 살피고 나누는 방법을 알려줬다'면서 '비로소 내 것만 챙기던 아이에서 벗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사회봉사단을 통해 배운 것들을 사회에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고려대 사회봉사단은 2008년을 시작으로 케냐, 몽고, 피지 등 해외 봉사활동과 헌혈, 사랑의 연탄 배달, 급식 봉사 등 국내외의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봉사활동을 기획부터 함께하면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다.

# 나무길

KU Donor's

"고맙습니다" 먼저 기억해주셨습니다.  
'고려대학교'라는 이름으로 한 가족이 되었고,  
묵묵히 지켜보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겠습니다.



| 다람쥐길 |

# 세계를 선도하는 후학 양성을 위해

고대의대 미주교우회 설홍수 회장 (의과대학 65)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후 도미, 현재 뉴욕에서 거주하며 미국 내 명실상부 최고의 신경내과 의사인 고대의대 미주교우회 설홍수 회장. 그의 모교에 대한 사랑은 졸업 후 30년이 지난 지금도 남다르다.



세계에는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면 그 뜻은 분명히 이뤄질 것입니다.

고려대 의과대학 미주교우회 설홍수 회장은 의과대학 졸업 후 1974년 도미, 현재는 뉴욕시에서 신경내과 개업과 함께 미국 코넬대 부속병원에서 컨설턴트로서 20여 년간 의학 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 끊임없는 도전의 세월들

1970년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미국행을 감행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터. 설홍수 회장에게 당시 도미를 결심한 이유를 물었다. “1970년대 초기의 한국 의학 수준은 선진화된 미국 의학에 비하면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도미 초기에는 미국의 선진 의학을 익힌 뒤에 귀국하려고 했지만, 지금까지 미국에 있게 되었습니다.” 설홍수 회장은 도미 후 신경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고 여러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언어 장벽으로 상당한 고초를 겪었다고 한다. 하지만 타국에서의 온갖 역경에도 의학의 끈을 놓지 않았던 설홍수 회장은 현재 뉴욕지구 개업의 사협회(KAMPANY) 회장, 전 미주한인의사회(KAMA) 회장을 역임했다. 또한 공화당에서 선정한 ‘2003 올해의 의사상’을 수상했으며, 2008년 뉴욕 낮소카운티 선정 ‘올해의 아시안상’을 수상했다. 지난 10년간 퀸즈 내의 여러 대학병원에서 수련의와 일반 의사를 대상으로 한 강연으로 ‘최고 강의 상(Excellence in Teaching Award)’을 수상하기도 했다. 유명한 미국 인명록인 ‘후즈후(Who’s Who)’ 명단에는 설홍수 회장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 설홍수 회장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후학들에게 전했다. “세계에는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면 그 뜻은 분명히 이뤄질 것입니다.”

### 한인 인권 신장을 위하여

미국 내에서 지역 활동과 한인 인권을 위한 활동 또한 활발히 하고 있다. 브루클린 교회 등 여러 교회에서 천여 명이 넘는 동포들에게 무료 의료 혜택을 베풀어 왔고, 북한 난민 구제를 위한 모금, 한인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모금 등 아낌없는 지원 활동을 했다. 최근에는 한인 정치력 신장 운동에도 뜻을 두고, KAPAC(한미공공정책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서 2세 한인 정치인 양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에서 오랜 생활을 하면서 미국에 정착한 한인들의 인권이 무자비하게 밟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한인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고 싶은 마음에 여러 모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미주한인의사 100년사〉 발간

2004년 미주한인의학협회장을 역임했던 설홍수 회장은 미주한인의사회 100년의 역사를 담은 〈미주한인의사 100년사(The Centennial History of KOREAN-AMERICAN Physicians in America)〉를 출판했다. 추진위원장 겸 주 편집자로서 6년여간 심혈을 기울인 작업 끝에 발간된 것이다.

“2004년 의사협회장을 역임하기 전 해인 2003년이 미국 한인 이민 100주년이 되었던 해였습니다. KAMA 초대 회장이자 미주한인의사회 개척자인 최재창 선생과 의학자이며 지도자인 현봉학 선생과 논의 끝에 여러 선배 의사들의 의견을 모아 100년사 책의 기획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기에 자료 수집과 출간까지 6년여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미주한인의사 100년의 역사가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구심체가 되어 후세에 좋은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 나를 만든 대학, 고려대

설홍수 회장은 평소에 의학 교육과 후학 양성에 뜻을 두고 1984년부터 고려대 의대에서 무료 진료와 의학 강좌 활동을 했다. 또한 지난 2005년부터 세 번에 걸쳐 총 2,700만 원을 기부 하는 등 후학 양성을 위해 장학금과 발전기금을 희사했다. 1980년대 의과대학 도서관 건립 기금, 미주 총 교우회 장학기금 모금에 앞장서 왔으며, 100주년 기념사업비, 2013년 미주교우회 명의 장학금 1억 5천만 원 전달 등을 통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해 오랫동안 힘써 왔다.

2014년 4월 24일에는 후학 양성과 의학 발전기금으로 써달라며 모교에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소재 7만 810㎡(21,420평, 공시지가 기준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기부했다. 이에 고려대 의과대학은 설홍수 회장의 의학 발전기금 전달에 대한 감사의 일환으로 의대 본관 4층 라운지를 ‘설홍수 라운지’로 명명했다.

설홍수 회장에게 고려대학교는 어떤 학교인지 물었다. “고려대학교가 없었다면 현재의 제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30년 전과 비교해서 고려대학교는 국내 최고의 대학으로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지금의 발전은 그동안 선배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버드, 컬럼비아, 코넬 대학 등과 같이 의과대학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외적으로 평가하는 세계 100대 학교에 진입도 중요하지만 고대의 졸업생들이 인격을 갖춘 인간으로서 높이 평가받는 학교가 되길 바랍니다.”

**멕시코 교우회 소개 및 결성 계기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 어디에나 있는 평범한 고대 교우회입니다. 특별한 계기라기 보다는 타지에 사니까 외롭고 나이도 먹어 가니 젊은 날이 그리워져 자연스럽게 모였죠. 지역적 특성 때문에 전체 30명 중 20명 정도가 서문과 출신이예요. 다행인 것은 교우들 모두 모교 발전에 관심이 많아 기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계기로 기부를 시작하셨는지요?**

교우들끼리 모였으니 당연히 공통의 주제는 모교에서의 추억, 그리움 같은 것이고 그런 감정이 모티브가 되어 교우회의 존재 기반인 모교 발전을 위한 작은 실천을 하기로 한 것이죠. 모두 마음은

있으니 돈만 모으면 됐던 것 같습니다. 애교심 없는 고대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지 그 마음을 자본화 시키는 약간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어떤 마음이 매년 꾸준히 기부를 행하는 원동력이 된 건가요?**

하버드대학 총장이 '교육은 돈입니다.'라고 얘기했다는데 상당 부분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이 비영리 기관이라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 면에서 대학의 거의 유일한 아웃풋인 졸업생들이 모교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모교가 발전하기를 바라죠. 나이를 먹다 보면 가정과 자식이, 모교와 후배가 잘 되는 것이 자기가

잘 되는 것만큼 기쁘고 자존감을 주니까 좋게 생각하면 우리 자존심 지키고 우리 즐겁기 위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평범한 공감과 애정이 모여 지극히 평범할 수도 있는 멕시코 교우회의 모교 기부가 시작되었고, 인원이 적으니까 처음에는 1년에 한 학기 등록금인 4백~5백만 원으로 시작했다가 4년 전부터 매년 1천만 원 이상씩 기부하고 있습니다. 류제현(서문 84) 전 회장님이 2천만 원 정도를 기부하면서 연간 기부금의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89이상은 30만 원, 90이하 20만 원 정도씩 내는데 여유가 있는 교우들이 조금 더 내고 있어 매년 적어도 1천~1천5백만 원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7년부터 기부를 시작해서 8년 동안 약 1억 원(정확히는 9750만 원) 정도를 기부했는데, 앞으로는 그 기간을 단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12년 안에 2억 정도를 기부해, 20년 동안 3억 정도 기부하는 게 목표입니다. 제가 약간 꿈같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멕시코 교우회가 평범하다고 얘기하는데 실제 평범하기도 하지만 제가 자꾸 평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대승적 차원에서 30만 교우 대부분이 평범하다고 보면, 저희 30명이 3억 정도를 기부할 수 있다면 30만 명이 힘을 합쳐 3조 정도를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입니다. 그 정도가 되면 모교가 세계적인 명문대와 본격적인 싸움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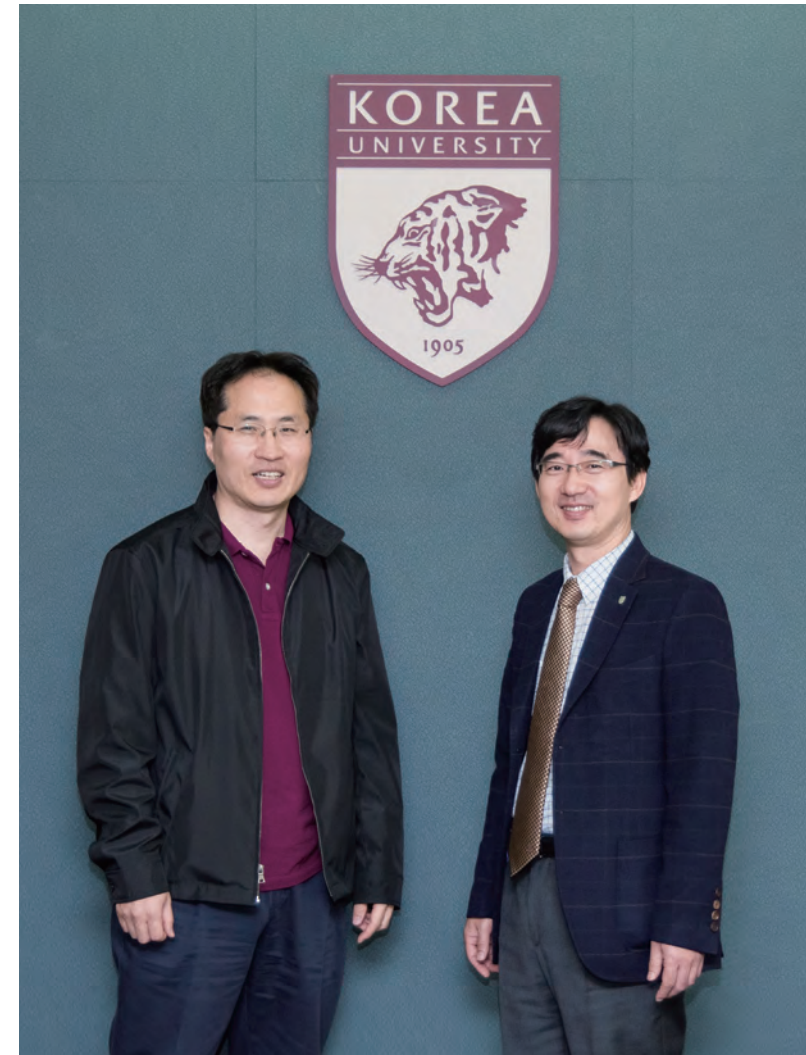
**기부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요?**

조직이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많아져야 하고 구성원 각자는 그 당연한 것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멕시코 교우회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교에 대한 기여는 졸업생의 의무'라는 것 같습니다. 모여서 술값은 선배가 내도 후배 장학금, 미래교육관 세미나실 기부는 모두가 각자 참여하는 게 당연하다는 공감을 갖기 시작하면서 모금이 쉬워졌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일을 하면 왜 해야 하느냐'는 소모적 논쟁에 에너지 낭비하지 않고 힘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백만 원 내면서 적게 내서 미안하다고 하시는 교우분도 계십니다. 솔직히 평범한 교우가 일 년에 1백만 원 내면서 미안해질 건 아니죠. 평소에 많이 내니까 어느 한해 그보다 적게 내면 괜히 미안한 거죠.

**회장님께 고려대학교는 무엇입니까?**

사실 이런 질문은 모교 발전에 기여하시는 원로 분들이 답하셔야 하는데 저는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애교심 이래 봐야 제 감정이 특별한 것은 아닐 거고 대부분의 교우들이 느끼는 감정일 겁니다. 젊은 날 그 좋은 시절이 있었던 곳이니까 보존되고 발전되기를 바라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뒤를 보는 시간이 점점 많아진다는 건데 모교는 그 때마다 한 번씩은 등장하는 배경이고, 앞으로는 더 자주 등장하겠죠. 자꾸 등장하는데 풀 보기 싫으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기여해야죠.



고려대학교 글로벌리더십을 김재철 라운지에서 기부약정식을 마친 멕시코 교우회 소민수 회장과 대외협력처 김상용 처장

**고려대학교가 어떤 학교가 되길 희망하시는지요?**

수치적으로 말한다면 세계 50대 대학 안에는 들어가야겠죠. 이런 얘기는 길어지니까 그렇고 정성적인 측면으로 보면, 재학생, 교직원, 졸업생들이 모두 사랑하는 대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모교에 관한 많은 기사를 접하게 되는데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어요. 제가 본 기사 중 가장 마음에 든 것은 중앙일보에서 SKY 대학의 기질 비교를 하면서, 동문회비 납부율이 서울대, 연대는 20% 이하이고, 고대는 90% 이상 납부했다는 거였습니다. 회사를 다니다 보면 경쟁사 대비 차별적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수없이 듣는데 후배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고대의 차별성'을 떠올릴 때 수능 몇 개 더 맞았다는 게 아니라 (솔직히 그런 자부심은 S대, Y대와 차별적일 수 없죠.) 학교와 후배들을 사랑하는 선배들이 많다는 게, 그리고 그런 선배들의 정신과 혼이 유무형의 자산으로 깃들어 있는 그런 학교를 다닌다는 게 차별적 자부심을 바랍시다.

## 평범한 기부를 실천합니다

멕시코 교우회 소민수 회장(서문 87)

“술값만 아껴도 충분히 기부할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를 방문한 소민수 멕시코 교우회장이 멕시코 교우회의 꾸준한 기부 비결에 대해 시원스럽게 말한다. 매년 1천만~1천5백만 원씩 꾸준한 기부를 이어오고 있는 멕시코 교우회, 건강한 기부 문화를 보여주는 멕시코 교우회의 결코 작지 않은 기부에 대한 이야기를 담는다.



# 고려대학교 발전기금 기부(약정)자 명단

※표기된 금액은 2014년 10월 1일부터 2014년 11월 20일까지의 약정액(원) 기준이며, 명단은 금액, 가나다순으로 정렬하였습니다.

10억 원 이상	더씨(The C)(대표 유기운)	10,000,000
송무현(㈜티엠씨 대표, 금속공학69)	1,000,000,000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의료법인 녹십자의료재단	560,000,000	
최종욱(권악이비인후과 원장, 의학68)	201,000,000	
고려대학교 ROTC 교우회	200,000,000	
형성실업㈜(대표 황의빈, 행정56)	200,000,000	
LG전자㈜(대표 구분준)	172,425,000	
(제)고려대학교한국선연종합연구재단(이사장 홍석민)	150,000,000	
84학번 입학30주년 준비위원회	140,000,000	
(제)삼성복지재단(이사장 이수빈)	112,800,000	
김철용(교수)	100,000,000	
이형수(㈜현승디엔씨 대표, 토목공학78)	100,000,000	
정성관(의학98)	100,000,000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송진원(교수)	92,600,000	
외과대학 22회 동교회	61,363,810	
74학번 입학40주년 준비위원회	59,987,000	
(주)에스피이퍼센터(대표 이용훈)	55,000,000	
김기중(㈜KY파트너스 대표, 체육교육74)	50,000,000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주)프린스턴리뷰코리아(대표 이용훈)	45,000,000	
법과대학 84학번 동교회	30,000,000	
(제)우덕재단(이사장 허정섭)	27,123,000	
박지순(교수)	25,000,000	
기계공학부 경영인 교우회(회기경영인회)	24,000,000	
롯데정보통신(대표 오경수)	24,000,000	
모종면(동양환경 대표, 농경제88)	20,000,000	
신희성(경제84)	20,000,000	
신희정(주)동명기술공단 대표, 토목공학87)	20,000,000	
도성재(교무부총장)	18,000,000	
(제)성남시장학회(이사장 서인수)	17,210,500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광병선)	16,029,500	
김준석(교수)	14,930,000	
김동복(일반)	12,000,000	
이현(교수)	10,092,000	
(주)이퀵(대표 김장복, 축산81)	10,000,000	
강상욱(교수)	10,000,000	
김진춘(주)한국지오택 대표, 토목공학77)	10,000,000	

이영선(간호70)	5,000,000	권오훈(주)고려피엔비 대표, 축산82)	2,000,000
이재석(법학80)	5,000,000	김상균(토목공학84)	2,000,000
최필급(사예최고위과정)	5,000,000	김은집(법학86)	2,000,000
1백만 원 이상 5백만 원 미만		김재구(법학86)	2,000,000
(제)케이티문화재단(대표 이갑주)	4,840,000	김주성(의대교우)	2,000,000
관훈클럽	4,016,120	김진환(법학87)	2,000,000
삼성생명(주)(대표 이수창)	4,000,000	롯데푸드(주)(대표 이영호)	2,000,000
이문규(주)우리두리 대표)	4,000,000	박민정(법학90)	2,000,000
(주)현대장식(대표 정연희)	4,000,000	박선미(직원)	2,000,000
뉴욕 간오대학 교우회	3,724,518	박성수(법학84)	2,000,000
김상식(교수)	3,600,000	박창수(법학87)	2,000,000
김상용(교수)	3,600,000	손종서(우리농장 대표, 축산78)	2,000,000
김용연(교수)	3,600,000	유승백(유승백&김경진내과의원 원장, 의학78)	2,000,000
명순구(교수)	3,600,000	이규원(전기공학89)	2,000,000
윤성택(교수)	3,600,000	이동재(법학84)	2,000,000
이원규(교수)	3,600,000	이상진(법학86)	2,000,000
이종호(교수)	3,600,000	이석우(고려정형외과의원 원장, 의학84)	2,000,000
전명식(교수)	3,600,000	이욱(법학82)	2,000,000
정원주(수학교육85)	3,600,000	이현기(기계공학72)	2,000,000
(주)수국(대표 하태호)	3,528,000	정교화(법학91)	2,000,000
김현욱(수학교육08)	3,500,000	차몽기(사랑의피부과의원 원장, 의학68)	2,000,000
윤병주(윤병주안과 원장, 의학57)	3,005,468	허용행(법학90)	2,000,000
(사)한국선급(대표 전영기)	3,000,000	박수근(경영81)	1,700,000
(주)백셀(대표 한충성)	3,000,000	한탁철(경영78)	1,700,000
(주)한화63시티(대표 이윤국)	3,000,000	이은(일반)	1,650,291
고대여성화학인네트워크	3,000,000	박건우(교수)	1,650,000
김용서(태극IBA(주) 대표, 기계공학74)	3,000,000	강현수(강현수피부비노기과 원장, 의학68)	1,500,000
김정석(법학81)	3,000,000	멀티비즈(대표 김등원)	1,500,000
민병찬(경영73)	3,000,000	이완기(이안과병원 원장, 의학68)	1,500,000
박인동(법학81)	3,000,000	이경철(주조은커뮤니티 대표, 불어불문91)	1,440,000
박정규(법학70)	3,000,000	곽정면(의학92)	1,200,000
사학과 84학번 동교회	3,000,000	김완배(교수)	1,200,000
신경란(신경란의원 원장, 의학77)	3,000,000	김종환(교수)	1,200,000
이경규(법학82)	3,000,000	박종은(축산70)	1,200,000
이명호(주)명세식품 대표, 축산78)	3,000,000	부윤정(의학94)	1,200,000
이윤영(의학92)	3,000,000	송태진(교수)	1,200,000
이정수(법학69)	3,000,000	한형준(의학94)	1,200,000
장세용(주)도화종합기술공사 대표, 토목공학71)	3,000,000	권영주(교수)	1,100,000
재단법인 문승과학지원재단(대표 이우균)	3,000,000	김백현(교수)	1,100,000
(주)지바이오(공동대표 지원철, 김지범)	3,000,000	박정호(교수)	1,100,000
최찬묵(법학80)	3,000,000	조윤정(교수)	1,100,000
호빙회	3,000,000	곽문자(의대교우)	1,049,160
(제)영도육영회(이사장 예춘호)	2,500,000	(주)미래자원ML(대표 김성진)	1,000,000
문현진(일반)	2,500,000	(주)새원엔벨(대표 나종주)	1,000,000
간오대학 72학번 동교회	2,143,189	(주)알앤에프(대표 이우춘, 축산81)	1,000,000
(제)오뚜기재단(이사장 함태호)	2,000,000	고일(교수)	1,000,000
(주)로보코(대표 박태수)	2,000,000	김승애(일반)	1,000,000
강경태(법학86)	2,000,000	김영규(직원)	1,000,000
김한승(법학87)	2,000,000	김우성(통계87)	1,000,000

김진규(교수)	1,000,000	한규현(토목공학76)	1,000,000
김진원(교수)	1,000,000	한정일(일반)	1,000,000
김창현(의학68)	1,000,000	허승철(교수)	1,000,000
김희욱(김희욱피부과 원장, 의학84)	1,000,000	홍성(법학98)	1,000,000
나홍식(두리이비인후과 원장)	1,000,000	홍세용(의학68)	1,000,000
두창대(서울외과 원장, 의학68)	1,000,000	황영달(경영85)	1,000,000
문상철(경영84)	1,000,000	황인규(황인규산부인과 원장, 의학68)	1,000,000
박영승(박영승정형외과 원장, 의학68)	1,000,000	황택현(경영86)	1,000,000
박원창(고려정형외과 원장, 의학68)	1,000,000		
박진우(경영81)	1,000,000	5십만 원 이상 1백만 원 미만	
박홍익(한강외과 원장, 의학68)	1,000,000	노업문화재단(이사장 최희상)	800,000
박후원(그린텍환경건설 대표, 토목공학76)	1,000,000	한기영(의학61)	773,566
석영중(교수)	1,000,000	권오주(권오주의원 원장, 의학55)	761,069
송중근(교수)	1,000,000	신태휘(의대교우)	725,106
신영권(화학공학77)	1,000,000	재단법인 월진재단(이사장 이재관)	700,000
신영기(의학98)	1,000,000	김경수(김경수내과 원장, 의학81)	642,857
신창훈(주차후 대표, 토목공학76)	1,000,000	(주)블루맨더(대표 류은미)	600,000
오연관(경영87)	1,000,000	김재정(대한의사협회 명예회장, 의학58)	600,000
오준철(통계69)	1,000,000	서산소방서(서장 이일용)	570,960
올택바이오코리아(주)(대표 예재길)	1,000,000	정재영(일반)	562,876
우태형(우태형비노기과의원 원장, 의학68)	1,000,000	오유환(교수)	550,000
유재영(주서하EBF 대표, 축산68)	1,000,000	김화자(간호83)	524,580
유한섭(주)현대종합유점 대표, 기계공학67)	1,000,000	시카고 간오대학 교우회	524,580
유호상(교수)	1,000,000	김진경(간호72)	522,450
유홍선(유내과의원 원장, 의학68)	1,000,000	박명혜(간호74)	522,450
이광미(간호84)	1,000,000	(주)뉴트리온어드밴스(대표 박성철)	500,000
이미선(간호84)	1,000,000	강승모(평송외과의원 원장, 의학73)	500,000
이선숙(학부모)	1,000,000	강은숙(직원)	500,000
이영목(주)ATOGM 대표, 축산82)	1,000,000	고원종(토목공학76)	500,000
이영조(학부모)	1,000,000	권칠훈(의학70)	500,000
이인묵(이인묵이비인후과 원장, 의학68)	1,000,000	김난숙(의학68)	500,000
이인성(교수)	1,000,000	김상석(토목공학76)	500,000
이정규(의학96)	1,000,000	김종민(고려가정의학과의원 원장, 의학83)	500,000
이종선(간호49)	1,000,000	김학계(교수)	500,000
이준근(경제54)	1,000,000	김혜준(교수)	500,000
이중현(경영86)	1,000,000	김혜경(간호84)	500,000
이지령(학부모)	1,000,000	김화은(김화은산부인과 원장, 의학68)	500,000
이창룡(경영83)	1,000,000	박경아(의학68)	500,000
장미선(태양아그로 대표, 농학76)	1,000,000	박순옥(간호84)	500,000
장인숙(밝은가정의원 원장, 의학87)	1,000,000	박종하(토목공학76)	500,000
전명자(일반)	1,000,000	박준상(의학)	500,000
전송배(토목공학76)	1,000,000	박형국(이천정형외과 원장, 의학68)	500,000
전홍건(토목공학79)	1,000,000	박혜경(직원)	500,000
정만기(화학80)	1,000,000	박효미(간호84)	500,000
제이제이건설(대표 이용훈)	1,000,000	백세현(교수)	500,000
제일사료(주)	1,000,000	서용원(직원)	500,000
지석우(축산81)	1,000,000	서충호(의학68)	500,000
최경숙(교수)	1,000,000	송동빈(교수)	500,000
최선(교수)	1,000,000	신재승(교수)	500,000
한국유업(주)	1,000,000	유창희(직원)	500,000
한국정보기술연구원(원장 유준상)	1,000,000	유태전(영등포병원 이사장, 의학58)	500,000

이병홍(이병홍이비인후과 원장, 의학68)	500,000	민부기(의학)	220,987
이종란(직원)	500,000	서래해상(주)(대표 김경태)	200,000
이진희(직원)	500,000	안길룡(안외과 원장, 의학68)	200,000
이한세(토목공학76)	500,000	신영규(명문소아과 원장, 의학81)	142,862
임미영(간호84)	500,000	권소영(교수)	142,857
장인환(포스코 대표이사 부사장, 금속공학74)	500,000	김문규(의학81)	142,857
전보권(교수)	500,000	김재환(교수)	142,857
조택상(에코베이스 부사장, 토목공학76)	500,000	김재현(김가정의학과 원장, 의학81)	142,857
최홍중(주)에치디산업 대표, 토목공학76)	500,000	김지희(의학81)	142,857
원종명(현피부강비노기과의원 원장, 의학68)	500,000	김창환(의학81)	142,857
		김택진(의학81)	142,857
1십만 원 이상 5십만 원 미만		남상학(예술성형외과 원장, 의학81)	142,857
이현급(교수)	433,851	노경아(노내과의원 원장, 의학81)	142,857
김기은(경영90)	400,000	노요안(우리들소아과 원장, 의학81)	142,857
김종석(경영90)	400,000	노재현(의학81)	142,857
김하중(경영87)	400,000	박용현(박용현피부비노기과의원 원장, 의학81)	142,857
문홍기(경영87)	400,000	박윤규(교수)	142,857
민준신(경영90)	400,000	사중대(의학81)	142,857
박태영(경영84)	400,000	스태수(의학81)	142,857
소영석(경영86)	400,000	오성욱(오성욱통증클리닉의원 원장, 의학81)	142,857
송동기(경영88)	400,000	오우석(오진경의과 원장, 의학81)	142,857
송문섭(경영89)	400,000	유영(교수)	142,857
이경선(경영87)	400,000	유종선(선우이비인후과 원장, 의학81)	142,857
이녹영(경영85)	400,000	이동기(중앙정형외과 원장, 의학81)	142,857
임기호(경영89)	400,000	이용주(이용주정형외과 원장, 의학81)	142,857
정성근(무역86)	400,000	이종환(요셉이비인후과의원 원장, 의학81)	142,857
주세은(서어서문86)	400,000	장용순(햇살 신경정신과의원 원장, 의학81)	142,857
진봉재(경영90)	400,000	전영진(의학81)	142,857
홍종팔(경영82)	400,000	정래환(고려산부인과의원 원장, 의학81)	142,857
김성근(토목공학76)	300,000	정성재(정내과의원 원장, 의학81)	142,857
나승도(통계92)	300,000	정휘정(정피부과의원 원장, 의학81)	142,857
노영식(사회93)	300,000	조용만(조은정형외과의원 원장, 의학81)	142,857
서계원(경영89)	300,000	차대룡(일반)	142,857
오남교(경영90)	300,000	최영철(의학81)	142,857
오병일(경영88)	300,000	최재일(최재일재활의학과 원장, 의학81)	142,857
윤영창(통계91)	300,000	한길주(한길주정형외과의원 원장, 의학81)	142,857
이병구(경영90)	300,000	홍진호(홍피부과의원 원장, 의학81)	142,857
이상민(경영90)	300,000	김석도(김석도이비인후과 원장, 의학69)	104,197
정남열(경영92)	300,000	김정묵(김정묵내과의원 원장, 의학66)	101,723
정선홍(무역92)	300,000	공영성(정외61)	100,000
정양수(경영90)	300,000	윤은상(노동대학원)	100,000
정은이(통계91)	300,000		
정재국(경영90)	300,000	1십만 원 미만	
정종만(통계92)	300,000	박종진(박종진이비인후과 원장, 의학82)	79,488
정훈(경영91)	300,000		
조성욱(경영92)	300,000	현물 기부	
조인석(경제88)	300,000	(주)다보링크(대표 이용환, 무선 컨트롤러)	258,500,000
차일규(경영89)	300,000	(주)포티유(대표 엄성훈, 롱테즈 외 4종)	8,940,000
최달(경영92)	300,000		
최득린(의학68)	300,000		
최필성(경영88)	300,000		



# 고대 TODAY, 남기고 싶은 말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건강, 돈보다 친구입니다. 친구가 빠지면 인생이 너무 쓸쓸해요.”

**주철환**(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국문학 74)

“84동기의 월별 행사에 한 친구가 서울대 출신의 동생을 데려왔는데, 저희들이 어울리는 모습을 본 동생이 ‘서울대 출신인 것을 최초로 후회했다’고 말했다 합니다.”

**정용태**(스톤앤메이플 대표, 경영학 84)

“법적 소양을 갖춘 사람이 기업에서 역량을 발휘한다면 세상이 원하는 투명 경영도, 실질적인 법치주의도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신영호**(법학전문대학원장)

“스피드와 파워를 동시에 요구하는 종목들은 체력이 우선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기술이 비슷한 수준일 경우 체력에서 우위를 점하는 팀이나 선수가 좀 더 좋은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죠.”

**김희우**(아이스하키부 감독)

“우리가 컴퓨터 코딩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프로그래머나 개발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적 사고를 갖춘 인재를 기르기 위해 컴퓨터 코딩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김현철**(정보대학 컴퓨터학과 교수)

“연구실의 많은 연구 결과를 기업체로 기술이전해서 국가 경제 성장 동력의 밑거름이 되게 하고 고려대학교 인재들이 창업을 활발히 해서 미래의 국가 동량이 되도록 함이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김상식**(산학협력단장, 창업보육센터장)

“1학기에는 사생체육대회를, 2학기에는 기숙사 축제인 호랑제를 개최합니다. 그 외에 쿠킹 클래스와 무료 맥주 파티, 과일 파티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언젠가는 다시 돌아가고 싶은, 사생들에게 좋은 추억만을 남길 수 있는 기숙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태혁**(안암학사 관리운영팀 부장)

“약에도, 수술에도 모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엑스레이만 찍어도 방사선에 노출되는 겁니다. 따라서 치료를 결정할 때에는 의사와 환자 모두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안형식**(보건대학원장, 예방의학 교수)

“모금 계획에 입각한 모금액을 달성해, 앞으로 10년을 교우회비 모집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기들이 더 이상 금전적인 부담 없이 편안하게 모임에 나와줬으면 합니다.”

**박혜원**(74여자교우회장, 간호학 74)

“재능이 넘치는 동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놓치지 않고 아름다운 광경으로 포착해 남겨준 이성희, 이민형 농구 감독, 박시백 화백, 자전거 탄 풍경의 강인봉, 뮤지컬 기획자 윤현진 등이 모두 재능기부를 해주었습니다.”

**조영봉**(변호사, 법학과 84)

[기초] 1 크림스 마스터즈 콘서트 2 구당 3 아이스하키부 4 광아로 5 산학협력단 6 코딩 7 고래 사냥 8 동해연구회 9 고려대학교 10 안암학사  
[세로] 1 크림스 어워드 2 스카이 3 축구부 4 멕시코교우회 5 글로벌 고려대 6 법학 7 호연학사 8 아고라

남말퀴즈 정답